

환경운동과 여성의 정치적 주체형성

- 에코페미니즘과 여성환경운동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최 소 영

환경운동과 여성의 정치적 주체형성

- 에코페미니즘과 여성환경운동 -

지도 김 호 기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6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최 소 영

최소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년 12월 일

차례

국문초록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2 장. 에코페미니즘의 이론 실천적 배경	6
제 1 절.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6
제 2 절. 생태학과 페미니즘	9
(1) 페미니즘	11
(2) 급진적 생태주의	16
제 3 장. 이론적 맥락—여성과 자연 연관짓기	23
제 1 절. 제2기 여성운동과 여성성 논쟁	23
(1) 제2기 여성운동과 여성성에 대한 재평가	23
(2) 여성성 논쟁과 에코페미니즘	30
제 2 절. 여성성과 에코페미니즘	32
(1) 심리/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	35
(2)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	42
제 4 장. 여성환경운동과 여성의 주체형성 과정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를 중심으로	48
제 1 절. 여성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환경운동	48
제 2 절. 환경운동을 통한 여성의 정치화 과정	53
(1) 여성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참여	57
(2) 여성의 능력에 대한 재평가와 정치 의식의 변화	61
(3) 여성의 주체 형성과 성역할	66

제 5 장. 결 론	71
제 1 절.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함의	71
제 2 절.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실천적 함의	76
참고문헌	83
ABSTRACT	93

국문요약

사람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그들의 건강이나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을 때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매우 민감히 인식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성들이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상적 실천에서도 여성, 특히 주부의 역할은 여성들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높게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구의 풀뿌리 환경운동이나 인도여성들의 삼림보호 운동, 한국의 주민환경운동의 많은 사례들에서 여성들은 운동의 주요한 혹은 핵심적인 주체였다.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왜 여성은 환경 파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여성의 어떤 특성에서 연유하는가. 그러한 여성적 특성은 생태친화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원리를 보여주는가,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성의 선도적인 역할은 자연과 함께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 70년대 말 이후 생태학과 페미니즘의 이론적 자원을 흡수한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의 친환경성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심과 주된 흐름들 보여주고 환경운동, 특히 풀뿌리 환경운동이 여성의 정치적 주체형성에 주는 함의를 살피는데 있다. 논문의 핵심적인 결론은 여성이 수행해온 사회적 노동이나 생물학적 경험 모두를 통해 여성은 환경파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여성이 스스로를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에코페미니즘의 관심은 여성해방 정치학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의 활동에서 생태친화적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작업은 생산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재사고할 것을 요구하는 생태주의 비판의 심화 확장이라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강조는 그것이 여성의 책임이나 능력에 대한 확인에서 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책임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모든 남성들

과 나누어 져야한다. 더구나 오늘날 환경을 파괴시킨 주된 원인이 반생태적 산업생산의 결과라면 남성들의 책임은 더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생태파괴에 대한 책임의 공감과 분담은 가정과 사회속에서 배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남녀의 역할과 가치들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듯 환경운동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힘이 진정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핵심단어: 환경오염, 여성, 풀뿌리 환경운동, 생태학,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생태친화적 사회.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9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운동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실천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에도 기인하지만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격렬한 반대운동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환경오염의 책임을 가진 가해자나 오염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격렬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피해보상운동에서 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수질과 대기 환경에 대한 일상적 관심과 실천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언론사가 직접 환경운동에 나서고,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많은 상품들에 근거없는 '녹색'딱지들이 붙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꾸준한 노력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터전에 대한 보호운동과 주부들이 중심이 된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재활용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실천은 여성들 스스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높게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가정을 관리하고 소비를 관장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임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항상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이 모든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주부들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많은 환경캠페인들에서도 두드러진다.

주부들이 앞장선 실천들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운동, 재활용품 수집운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운동들에는 여성이 환경오염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적 친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친화성이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 주부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성의 모성적 본능이나 생물학적으로 유래하는 성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적 실천과제를 여성들이 떠맡게 됨으로써 가사노동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측면 역시, 이러한 실천의 환경보호 효과와 대비해 평가되지 않고 있다.

과연 여성은 자연을 보호하는데 다른 주체보다 더욱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이해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특성에서 유래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성이 앞장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실천적 관심이나 여성과 자연의 친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관심들은 여성들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성의 노동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역할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인가?

제 2 절. 연구의 목적

서구의 환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몇몇 여성들은 여성에게 환경운동이 갖는 의미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질문해 왔다. 80년대 초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 주제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¹⁾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페미니즘(Feminism)을 결합한 말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으로 볼 수 있는 에코페미니즘은 1978년 프랑소와즈

1)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국내 문헌에서는 대개 '생태여성론'으로 번역하고 있다. 페미니즘(feminism)을 '여성주의'나 '여성론'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성에 대한 억압과 해방에 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여성해방론'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에코페미니즘 역시 여성의 생태, 자연과 여성 자체에 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여성억압과 환경파괴,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이라는 사회적 사실과 해방적 관심을 내포하고 있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냥 '생태여성론'이라고 번역하기에 주저되는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매리 델리의 책 *Gyn-Ecology*를 '산부인학'으로 오역하는 것처럼 생태여성론도 '여성과 생태' 혹은 '여성학과 생태학'의 결합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생태여성론'은 여성과 자연이 '생태학적'으로 가깝다든가 환경친화적이라든가 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일부 주장들을 연상시키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글에서는 소극적 방편이긴 하지만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도본느가 그녀의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아직 이론적 입장들이 명확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에코페미니즘은 국내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페미니즘 이론 내에서는 '여성성'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논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물론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실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서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이론은 아니다. 서구에서의 풀뿌리 환경운동이나 평화운동, 제 3세계 여성들의 삼림 보호투쟁, 우리나라의 주민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여성들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직접적 분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이론은 오히려 신사회운동론에서 잘 설명되며, 여성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실천과 이론-여성환경운동과 에코페미니즘은 긴밀히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결국 에코페미니즘은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정치적 사회학적 분석보다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생태파괴를 통합적 인과고리로 연결짓는 이론적 시도이며, 환경파괴에 대한 여성해방론적 설명에 가깝다.

많은 에코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여성환경운동이 여성의 창조적 활동을 고양함으로써 여성해방적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여성환경운동의 여성해방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주장이다. 본 논문의 관심은 여성과 환경의 실천적 친화성을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에 따라 이론적으로 규명해보고, 에코페미니즘이 함축하고 있는 여성환경운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이 함축하고 있는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찾는데 있어 본 논문은 '여성'환경운동과 여성'환경'운동을 구분하고, '여성'환경운동보다는 여성'환경'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여성'환경운동이 사회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여성적 특성을 강조해 여성들을 중심으로 벌이는 환경보호운동을 지칭한다면, 여성'환경'운동의 경우는 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실천을 의미한다. 전자는 주로 생활협동조합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제조·이용 운동 등을 포함하고, 후자의 경우 지역주민의 환경운동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대상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여성'환경운동이 여성이 중심이 된 환경보호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환경'운동의 경우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이나 자각을 통해 운동에 참여했다기 보다는,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지역의 환경이슈에 참여하게 되었던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이 주로 여성'환경'운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민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험이 에코페미니즘 이론을 형성시킨 배경이 되었으며, 에코페미니즘 이론이 주장하는 '여성과 자연의 친화성'을 따져 볼 수 있는 실례가 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친환경성'은 성 역할에 기반한 실천을 통해 드러난다. 환경운동이라는 비일상적 경험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은 여성해방과 환경운동의 대의를 연결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전망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다. 여성'환경'운동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환경 운동은 여성의 환경 친화성을 수용하는 경향이 많아 실제로 여성들에게 환경관리자로서의 특권이 있는지, 그러한 특권이 여성해방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를 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천적 계기들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여성'환경운동과 여성'환경'운동을 굳이 구분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환경운동이라 말하면 우선 여성들의 환경사랑실천을 먼저 떠올리지만 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실천 속에 여성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장과 3장은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맥락을 4, 5 장은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가능성으로 여성환경운동의 실천적 함의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에코페미니즘과 여성환경운동을 연결짓는 중요한 고리는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 의지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여성 노동(혹은 역할)의 사회적 의미에 기반한 여성성, 여성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여성의 경험과 지위에서 정치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실제로 여성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설명하는데 매우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여성과 자연을 피해자로서 보다는 창조자로서 강조하는 적극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여성성, 혹은 여성의 성역할은 그 내용이 본질주의적이든 아니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성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한적이지만 실천적인 긍정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가 지역주민들의 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우인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여성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각성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루면서 위의 과정을 통해 운동에 동원되는 계기가 여성해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이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공동체의 가치 등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은 여성억압적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가적인 계기이다.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여성이 사회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과정에 대한 강조는 에코페미니즘의 몇몇 핵심 주장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비판의식의 성장과 여성이 변화의 주체로서 형성되는 과정은 여성운동이나 환경운동 모두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때 긍정적 계기로서 작용하는 여성의 지위나 성역할은 그것을 물역사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다만 성역할에서 출발한 의식화가 권력의 성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기보다 그 불평등을 인식하고 갈등을 더욱 드러내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여성적 가치를 비판의식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만큼 강조되어야 한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주요 저작과 논문을 검토하여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논점들을 정리한 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이 여성 환경운동에 갖는 실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4장에서 다루어지는 여성 환경운동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함의는 여성의 노동과 성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자연의 연관을 강조하는 입장의 에코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국내외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태도나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 5장 결론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전망에 비추어 정리하고자 한다.

제 2 장.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적 · 이론적 배경

이 장의 1절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의 등장배경을 70, 80년대 서구 환경운동,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2절은 에코페미니즘의 주요 이론적 자원을 살펴보는 데, 근본생태론과 급진적 페미니즘으로부터 출발한 생태학과 페미니즘의 영향이 사회생태론과 생태맑스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룰 것이다.

제 1 절.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새로운 사회운동- 여성, 환경, 평화운동들은 에코페미니즘 논의의 실천적 토대를 이룬다. 이들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실천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해있거나 여성의 사회적 처지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에코페미니즘 논의가 출발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1970년대 후반 여성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의 교차점에서 정치적 지적 경향으로 출현했다. 이는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반대운동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1980년대 초반 반핵운동과 연계되어 정치적 성향으로 발전했다. 정치적 경향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은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의 급진적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성적 배열의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양성간 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시켰다. 에코페미니즘은, 급진적 여성운동을 통해 남성문화에 대항하는 문화적 여성사회의 구축을 위해 힘써온 많은 여성들이 군사주의와 환경위기라는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의 적실성을 탐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두되었다.(Epstein: 1993)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작가 프랑소와즈 도본느가 1974년 그녀의 책 *La Feminisme ou la Mort*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후 1980년 일군의 여성

들이 'Women and Life on Earth: Ecofeminism in 1980s'라는 명칭의 협회를 조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채택했고, 이 협회의 참여자들은 에코페미니즘의 정치적 이론적 전망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초기 에코페미니즘에 관한 글은 1970년대 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나타났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보다 풍부해지고 이론적으로 정교해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현실운동은 10년 전부터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환경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여성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종종 그런 여성들은 자신을 에코페미니스트로 생각하지 않았다.(Epstein: 1993)²⁾

이는 여러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듯이 환경이라는 이슈에서 성의 문제보다는 인종이나 계급적 정의가 중요시되었던 운동의 상황에서 비롯된다.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스스로를 블루칼라나 유색인종 여성, 어머니로서 동원했지, 성차별의 피해자로서 자연과의 동일시에서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해방적 관심에서 생태위기나 환경파괴를 설명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관심은 여성억압의 지배이론을 자연에 대해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났을 뿐, 환경운동의 주요 주체로서 여성의 지위나 실천전략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던 점에 있다.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는 풀뿌리 환경운동의 성장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1970-80년대 많은 시민권 운동과 행동주의 그룹은 독성폐기물과 건강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 운동은 다양한 인종과 계급을 포함했다. 백인 중산층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전국적 환경운동조직(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과 달리 풀뿌리 환경운동(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은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사람들을 동원해내었다³⁾. 그들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물

2) Epstein, Barbara(1993), "Ecofeminism and Grassroo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Richard Hofrichter eds, *Toxic Struggles*(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1993), p144-145.

3)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내 풀뿌리 환경운동의 성장배경으로, 첫째 전후 화학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오염시설의 증가와, 둘째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한 인식의 확산, 세째 60년대와 70년대의 시민권운동, 반전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의 경험이 사회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확산시켰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N. Freudenberg & C. Steinsapir, 1992). 특히 시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의 투쟁방

종의 감소같은 문제보다는 공해물질로 인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더 중심적인 문제로 삼았다. 그리고 문제의 발생원인을 고려함에 있어 사회정의의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인종이 특정 지역의 유해시설 입지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연구 결과는 인종주의의 한 형태로서 환경피해의 집중-생태적 인종차별주의(environmental racism)를 밝혀냈다. 그 결과 환경정의는 풀뿌리 환경운동 내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풀뿌리 환경운동을 다인종 조직과 인종/계급 관계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여성과 환경의 연관은 이러한 인종과 계급, 환경에 관한 논쟁과 운동에서 중심된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운동에서의 수적 우세와 지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성차의 문제를 유색인종들이 인종적 이슈로 만들었던 것처럼 운동의 중심적 이슈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풀뿌리 환경운동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성폐기물의 영향을 강조했는데, '지역'은 '성차'보다는 '인종'을 더 극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은 주도적인 정치력으로 보다는 일반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받는다.(King: 1993)⁴⁾

그럼에도 풀뿌리 환경운동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여성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주장들을 낳게 한 배경이 되었다. 급진적 페미니즘과 전통적 맑시즘의 사이에서 급진적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는 논자로 평가받고 있는⁵⁾ 킹(King)은 1980년대 중반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전적으로 여성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환경 정치학이 여성에게 특별한 친화력이 있으며 성차의 정의와 착취, 그리고 자연환경의 파괴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주장한다.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치에 대한 여성의 친화력에 대한 근거와, 성차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적 요

식은 풀뿌리 환경운동의 리더십, 조직구조, 활동가를 제공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글의 4장에서 다루게 될 외국의 사례들로 풀뿌리 환경운동은 그 조직 형태와 전략을 60, 70년대 시민권운동으로부터 많이 빌려왔다고 할 수 있다.

4) King Ynestra, "Feminism and Revolt of Nature", *Heresies: a Feminist Journal of Art and Politics*, (February 1983: 14).

5) Epstein, Barbara, *윗글*.

인 사이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여성이 자연과 동일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혹은 여성적 자질과 생태학적 원리가 가지는 친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구성되고 있다. 여성들의 환경운동 참여 과정을 통해 여성과 자연을 연관지을 경우,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 관계에서 피해자로서의 측면보다는 환경파괴에 대한 여성의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긍정성의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에코페미니즘은 사회/자연의 보다 지탱 가능한 관계에 대한 열망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행동 지향이라기 보다는 영성(靈性) 지향의 운동으로 지적 받는다. 이는 초기 에코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급진적 페미니즘과 근본생태학이 에코페미니즘의 이론 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생태학과 페미니즘 - 이론적 연관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내에는 여성 억압과 착취의 근원으로서 여성/자연의 연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와 함께 풀뿌리 환경운동의 성장은 환경, 평화 운동에 대한 여성의 활동을 이론적으로 포섭하려는 노력을 자극하여 생태위기를 페미니즘의 주제로 다루는 흐름이 생겨났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슈프레트낙(Spretnak, 1990:5-6)은 에코페미니즘으로 가는 세가지 경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60년대에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에 대한 지배 이론을 발전시켰던 경로이다. 그들은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를 무시하는 고전적 지배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가부장제에 대한 문화 역사적 분석은 여성에 대한 지배이론을 구성하는 또 다른 이론적 자원이었다. 둘째, 1970년대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승배의 인류학적 자료를 통해 여성과 자연 속에서 생태적 지혜로 가득한 영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셋째, 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운동에서 환경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생태위기에 대한 페미니즘적 설명을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번째 경로인 환경운동의 성장은 주로 근본생태론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에 영향을 미쳤다. 근본생태론은 생태사상의 여러 분과 중 처음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을 시도했는데, 이들의 문제제기는 사회생태론자들이나 생태사회주의, 생태맑스주의 등으로 확산되어 급진적 생태주의의 흐름을 만들게 되었다. 에코페미니즘에 미친 생태주의 사상은 근본생태론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사회생태론이나 생태사회주의, 생태맑스주의적 영향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에코페미니즘에 이론적 영향을 미친 페미니즘과 생태학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자원들.

에코페미니즘의 두가지 경향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심리/물질, 생물/사회 등의 구분 자체가 잘못된 이분법이라는 이유에서 거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위의 표에서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과 사회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을 함께 묶어 놓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주의의 경우 사회생태론과 생태사회주의 등근본생태론 외 여타 급진적 생태주의가 에코페미니즘에 미친 영향은 각 이론적 분파에 따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묶어 놓았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경우, 급진적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여성의 정신적 문화적 능력에 대한 강조나 재평가 노력들이 주로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의 경향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노동과 역할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에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오른쪽 페미니즘의 영향은 분리해 놓았으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나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일부 에코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의 네 가지 흐름이 각각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페미니즘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성운동 모두 인간/자연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다양한 방향에서 영향을 미쳐왔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경우 환경개량주의적 태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여성해방론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이성적 행위자로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교육과 경제적 기회의 배제를 개선한다면 인간생활의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은 환경오염의 문제에도 적용되는데 여성이 환경을 관리하는 다양한 업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을 문화에 여성을 자연에 연관시키는 데 대해

6) 표 1 참고.

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연에 대한 관계나 실천적 친화성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관심과는 거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인정하듯이 에코페미니즘의 출발점에서 주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었던 것은 급진적 페미니즘이다. 따라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과 이를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기여를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론적 기여를 살피고자 한다⁷⁾.

급진적 여성해방론의 영향을 받은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 비판을 통해 환경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과 자연의 정신적 측면으로부터 해방적 잠재력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체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장 본질적인 착취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과 자연 지배의 문제를 재조정하고자 한다. 급진적 여성해방론이 여성과 자연과의 연관성을 깊이 탐구해온 반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지배라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Merchant, 1990).

급진적 여성해방론은 제2기 여성운동이 일어났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발전하였다. 파이어스톤은 『성의 변증법』에서 여성해방론과 생태학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그 후의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은 자연환경과 교감하는 여성들의 정신적 경험을 근거로 생태학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⁸⁾. 에코페미니즘의 급진주의적 형태는 서구 문화에서 여성과 자연이 상호 연결되어 평가절하되어 왔지만,

7) 재거(Jagger)에 의하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급진적 여성해방론의 영향으로부터 나타났다. 급진적 여성해방론에는 여성의 통상적인 생물학적 경험을 강조하는 측면과 인종 계급으로 구분된 여성의 경험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나중의 집단이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구분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다. Jagger, Alison(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Rowman & Allenheld, 『여성해방이론과 인간본성』, 이론과 실천, 18p. 에코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급진적 여성해방론을 재거와 같이 이해한다면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8) Jagger, 윗글, 355p.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이 들은 해방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급진적 여성해방론은 여신숭배, 달, 동물, 그리고 여성들의 재생산 체계에 중심 기반을 둔 고대 의식의 부활을 통해 여성과 자연의 관계를 찬양하고자 한다. 자연을 어머니와 여신으로 존중하는 통찰력은 수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에게 힘과 영감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되며 직관력, 서로에 대한 관심의 윤리, 인간과 자연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들에 대한 사고는 에코페미니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초기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이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여성의 능력과 공간을 제한하는 남성중심적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점차 여성과 자연에 대한 평가절하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성과 자연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게 되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여성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여성을 집안에 묶어두는 부정적 연관으로 간주되어온 것들을 여성적 힘의 원천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진주의적 에코페미니즘이 남성/여성, 정신/육체, 문화/자연이라는 이분법의 한쪽 항인 여성, 육체, 자연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그들이 타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위계질서를 영구화시킬 위험에 봉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여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Merchant, 1990).

한편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변증법적 관계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생태학적 관심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⁹⁾. 머천트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¹⁰⁾은 여성, 노동자 계급, 자연이 동시에 해방될 수 있는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혁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에 따라 여성/자연 연관에 대한 생물학적 환원론의 위험을 피해가면서도 여성과

9) Jagger, 윗글, 355p.

10) 머천트는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의 관심에 밀접한 에코페미니즘을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으로 부르고 있다(merchant, 1990).

자연에 대한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물학적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자연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연관을 증시하는 생태학적 사고들은 보다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의 목표는 비성차별적, 비인종 차별적, 비폭력적, 그리고 반제국주의적인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백하게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 제3세계 여성들 그리고 흑인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페미니즘의 각 조류에 따라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Merchant, 1990).

	자연	인간 본성	환경주의에 대한 여성해방론적 비판	여성해방론적 환경주의의 이미지
자유주의 페미니즘	원자/ 정신-육체 이원론/ 자연지배	합리적 행위자/ 개인주의/ 자기이익의 극대화	"인간(Man)과자연" 여성을 제외.	여성의 자연자원과 환경과학에 참여
맑스주의 페미니즘	인간사용 위한 과학·기술에 의해 자연변형/ 인간자유의 획득 을 위한 수단으로 자연지배/ 자연은 삶의 물질 적 기초: 음식, 의 복, 거주, 에너지	생산양식, 실천을 통한 인간본성창조/ 역사적으로 특수한, 고정되지 않은 인간의 종적 본성.	자연과 상품, 이윤 추적의 자본주의적 통제에 대한 비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 을 위해 자원사용/ 노동자에 의한 통제/ 잉여가치 폐지로 환경오염 최소화/ 여성과 남성 모두에 의한 환경연구
급진적 페미니즘	자연은 영적이고 개인적/ 전통적인 과학과 기술은 지배에 대 한 강조로 인해 문제있음.	생물학은 기본적 인간은 성적으로 재 생산되는 육체/ 생물학에 의해 결정 되는 성(sex)과 사 회적으로 결정되는 성(gender)	자연과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상호연 관을 인식 불가능/ 남성중심적 환경주 의는 위계제 내포/ 여성의 재생산(화학 물질, 핵전쟁)에 대 한 환경위험에 대해 관심이 부족	여성·자연은 둘다 가치있는 것으로 찬 양됨/ 재생산의 자유/ 여성과 자연에 대한 포르노그래피적 묘 사에 반대/ 급진 에코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자연은 삶의 물질 적 기초: 음식, 의 복, 거주, 에너지/ 자연은 사회적이 고 역사적으로 구 성된다/ 생산에 의한 자연 의 변환.	인간본성은 생물학 과 실천(성, 인종, 계급, 나이)을 통해 형성/ 역사적으로 특수하 고 사회적으로 구성 됨.	여성의 역할을 재생 산과 범주로서의 재 생산에 국한시킴/ 체계적 접근은 기계 적이고 비변증법적 임.	자연과 인간생산은 모두 활동적인 것/ 생물학적 사회적 재생산의 중심성/ 생산과재생산의 변 증법/ 다차원적 구조분석/ 변증법적 체계/ 사회 주의 에코페미니즘

표 1. 페미니즘의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

(2) 급진적 생태주의

환경주의와 구분되는 급진적 생태주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경제적 원리와 기술, 가치를 주장하는 급진적 정치이념을 표현한다.¹¹⁾ 근본생태론의 문제제기에서부터 분명해지는 이러한 흐름들은 이후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이론적 조류- 사회생태학과 생태사회주의, 에코페미니즘 등-속에 공통의 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들은 대체로 성장의 생태학적 한계에 대한 동의와 새로운 성장방식의 요구,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과 조화의 원리로 표현된다. 아래에서는 근본생태론을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 이론에 미친 영향을 급진적 생태주의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급진적 생태주의의 원리는 환경주의로 지칭되는 인간 중심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해결 방식을 비판한다는 점, 그리고 합리성과 계몽주의 가치, 근대적 생산방식, 자연에 대한 지배/ 착취, 그리고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반대하는 점에서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급진적 생태주의의 또다른 특징은 참여와 자결의 '공동체적 운영원리'를 통해 인간의 갈등적 요구가 합의 될 수 있다는 가정에 있다. 세번째로 실천 전략에 있어서 제도 내외적인 정치활동과 생활양식으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한다. 비록 권력관계의 물질성에 대한 인식이 비현실적이라든가, 공동체의 결정원리로서 인간의 협동성을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녹색 정치의 원리는 분명 기존의 사회운동 조직과 정치의 원칙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근본생태론과 에코페미니즘

생태학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호의존과 연계를 강조하며 그 연관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한다. 근본생태론자들의 경우 모든 위계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부정하고자 한다. 인간의 지구생태계내 지배적이고 중심적 위치는 근본생태론자들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받는다.

11) 앤드루 돕슨, 『녹색정치사상』, 민음사, 1993.

예컨대, 근본생태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모든 산업 오염과 생물종의 멸종, 생물권의 파괴, 핵의 위험 등은 인간중심주의의 증후이다.

근본생태론자들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님을 인식할 때 모든 종들이 그들의 진화론적 운명을 다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폭스(Warwick Fox)에 의하면¹²⁾, 인간이 전체 생태계 내에 차지하는 제한적 지위에 대한 강조와, 인간과 자연간에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근본생태론자들에게 핵심적이다.

근본생태론에 의하면 서구적 인간은 정신과 육체, 인간과 자연 등의 이분법속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서구적 이원론은 인간의 부정적 측면- 죽음, 의존성, 한계성-을 은폐하고 그 모든 것을 이분법의 다른 한쪽인 육체와 자연으로 떠넘겨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또한 근본생태론자들은, 뉴튼의 물리학으로부터 출발해 로크와 흄스에 의해 사회이론으로까지 확장된 원자론적 인간 이해를 반대하고 우주론을 구성하는 내적인 연관을 풍부히 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동양의 종교와 신비주의에 조응하는 그들의 관점은 我와 非我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이원론의 한계를 통찰하고 합리성을 판단한다.

근본생태론자들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매우 추상적이며 실질적인 인간간 지배관계나 사회제도의 분석에 대해 무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판을 받는다. 특히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근본생태학이 남성백인 중심의 필자가 썼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남성적 편견의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근본생태론자들이 비판하는 서구적 범주들에 대한 가부장제의 중심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근본생태론자의 자연과 몸, 자아 등의 개념이 가부장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근본' 생태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을 요구한다는

12) Michael E Zimmerman, "Deep Ecology and Ecofeminism: Emerging Dialogue", 위의 책,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p139, 140에서 인용.

면에서 근본생태론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생태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본생태론에 대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본생태론과 에코페미니즘은 급진적 생태주의의 다음과 같은 원리를 공유한다.

첫째로 비위계적인 사고와 이원론에 대한 반대는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모순의 비위계적 연관을 인식하도록 도우며, 실천적으로 대안적 사회를 위한 정치전략을 보다 급진적으로 만든다. '평등주의적'이고 유연한 인식론적 입장은 이원론과 함께 환원주의를 거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급적 억압이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억압은 인종적 차별과 생태계내의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중요하며, 모든 억압의 구조들은 상호지탱해주는 유기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총체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¹³⁾. 예컨대 자연의 지배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여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에 있어서 동일한 개념구조를 통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¹⁴⁾. 억압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찰로 인해 에코페미니즘이론은 가장 통합적이고 가장 급진적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여성해방운동과 생태운동은 각각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벗어난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구조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관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Merchant, 1990). 그리고 여성운동과 생태운동 모두 시장경제의 산물인 경쟁과 공격성, 지배에 대해 비판적이다(김양희, 1993).

세 번째로 생태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반생태적 반여성적 사고에 대한 비판전략은 '드러냄의 사고'를 강조한다. 이론과 과학 내에 은폐된 주체와 객체의 지위를 환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보편 부당한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조는, 생산된 지식이 어느 성별과, 인종과, 생태계내의 지위와 세계체제에서의 위치 하에서 상황지워진 것인가하는 것을 밝히고 그 안에 한계를 둔다. 따라서 이원론의 위계적인 속성이 (남성적)주체를 전능함과, 신성함, 보편적 객관성 속에 은폐함으로써 가능했다면, 그 효과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맥락을 드러내 주/

13) Plumwood, Val(1994), "The Ecopolitics Debate and The Politics of Nature" in *Ecological Feminism*, Karen warren eds(1994), (London & New York: Routledge), 79p.

14) 앞의 글, 74p.

객의 위계적 권위를 동등한 주체로 해체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요구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Plumwood, 1994).

근본생태론에 대한 에코페미니즘의 비판

에코페미니즘과 근본생태론은 공통점과 아울러 차이점을 갖는다. 공통점 중의 하나로가치이론(value theories)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Kheel, 1990). 근본생태론자들은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인간의 효용에 근거한 인간중심적 발상이며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동등한 존재의 권리와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에코페미니스트들도 역시 인간이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남성의 필요와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과 근본생태론은 권리나 의무에 대한 관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짐 체니(Jim Cheney)에 의하면 '권리'란 말은, 타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안에 고립되고 자율적인 에고(ego)로 인간을 바라본다. 이점에서 근본생태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물의 '권리 인정'이라는 개념은 관계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로서 생물에 대한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권리에 기반한 생물권적 평등주의 구상은 남성중심주의와 가부장제와의 연관을 드러내는 인간 사회의 원자론적 개념을 드러낸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Zimmerman, 1990:146).

에코페미니즘이나 근본생태론 모두 가치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합리적 논의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발전과 '내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 여기서 말하는 내적인 전환이란 근본생태론에서 얘기하는 '타인과의 진정한 공동체(동일시)', 더 나아가서 자연세계와의 공동체(동일시)를 이루는 경지를 의미한다(Devall & Sessions, 1985). 그러나 근본생태론에서 말하는 '자아의 확장'을 통한 이원주의 극복의 시도는 두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인으로서의 자기 통합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전체의 '선(good)'에 종속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참된 자아를 자아의 정체성과

자아(Self- 초월적 자아)에 의해 정의한다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자아정체감의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계성을 빼놓는 것이다(Zimmerman, 1990:149). 보다 큰 '전체'와의 동일시를 선호하는 것은 좀더 지속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여 특수성, 구체성의 세계를 초월하려는 데 익숙한 남성들의 충동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Kheel, 1990:136).¹⁵⁾

보다 큰 '전체'와의 추상적인 동일시에 따르는 위험성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철학과 환경보호운동의 주된 실패 요인인데, 생태계나 확장된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대체함으로써 근본생태론은 개별 존재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말살시키는 위험스러운 전체주의를 만들어 왔다.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보는 모든 생명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고 전체적인 의식은, 더 넓은 전체뿐만 아니라 특정존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인식이어야 한다(Kheel, 1990: 136, 137).

인간중심주의를 억제하고자 근본생태론자들은 종종 사물의 우주적 틀 속에 인간의 상대적 왜소함을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체계에 의존한다. 이같은 형이상학적 기반에서 근본생태론자들은 인간의 자기 교만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 생명중심적 평등주의와 같은 도덕 원리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경시하는 듯한 형이상학적 도덕적 원칙들을 경계한다(Zimmerman, 1990: 151). 그리고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우리가 인간인 까닭에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태도도 인간의 특성으로부터 나온 원칙과 통찰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소극적' 인간중심주의 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¹⁶⁾

15) (남성)인간중심주의의 기원에 대해 짐머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모든 가치와 진실, 그리고 의미의 척도와 기원이 된다. '가치'는 오직 인간의 필요와 관계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자연은 그들에게 육체에 대한 의존을 일깨우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자연을 '정복'하고 우리의 불멸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Zimmerman, 1990:141).

16) 돕슨(Dobson)은 인간중심주의라는 말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폭스(W. Fox)의 논의를 빌어 적극적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란 '비인간세계를 순전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 달리 소극적 의미의 인간중심주의는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중립적인 의미

때, 이는 곧바로 여성이 이해되는 방식, 남성중심주의에 의해 타자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된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더욱 급진적으로 비판할 수록 그들은 여성과 자연을 더 밀접하게 연관짓게 될 가능성도 생기는데, 이는 여성성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포함하게 되면서 논쟁적인 성격을 띤다.

제 3 장. 이론적 맥락— 여성과 자연 연관짓기

제 1 절. 제2기 여성운동과 여성성 논쟁

(1) 제 2기 여성운동과 여성성에 대한 재평가

제2기 여성운동은 1기 여성운동에 비해 그 이념적 흐름이 더욱 다변화되고 이론적 내용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제2기 여성운동 내에는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전통과 함께 급진주의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네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급진주의 여성운동은 제2기 여성운동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그것은 자유주의 여성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이 모두 여성 고유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다(장미경, 1996).¹⁹⁾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키고 여성 차별의 억압이 가지는 보편적 속성을 강조했다. 급진적 페미니즘의 공통된 주장은 여성 억압이 최초의, 가장 보편적인, 가장 뿌리깊은 인간의 억압 형태임을 인정한다는 점이다(Jagger & Rothenberg, 1984).²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이 여성이 아닌 남성의 필요, 욕구,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성활동을 구축한 방법을 자유주의나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보다 명백하게 묘사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동일시하는 여성의 성활동을 재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재구성이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정신과 경험을 재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나갔다. 이러한 작업은

19) 장미경 편저(1996), "여성운동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문원.

20)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rg eds(1978), *Feminist Framework-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신인령 譯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1983.

여성억압의 사회적 기원과 배경을 밝혀내고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는데, 초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여기에 집중되었다.

줄리엣 미첼(Juliet Mitchell)은 여성의 생산에 대한 공헌이 가정 영역에 대한 강조에 의해 모호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생산의 주요 부문에서 제외되어 온 것은 경제적 상황에서의 여성의 이른바 신체적 연약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적 역할에도 기인한다고 보았다. 출산은 이제까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 왔으며 출산이 생물학적 사실로 남아있는 한 여성은 사회적 착취라는 운명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모성적 역할, 가족, 생산과 공적 생활로부터의 이탈, 성적 불평등이라는 인과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역할과 지위를 거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출산은 더이상 여성에게 유일하거나 궁극적인 사명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여러가지 가능한 선택 중의 하나가 될 뿐이다(Mitchell, 1973).²¹⁾ 이와 비슷하게 쉘라미스 화이어스톤은 『성의 변증법』 *Dialectic of Sex*에서 여성해방을 위한 혁명은 “타고난 성의 차이가 아무런 문화적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그러나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냄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보았다.²²⁾

이들의 주장은 논조나 강조점에 있어서 서로 달랐지만 오늘날 여성들의 복종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성역할의 영향력이라는 점에 있어 수렴한다. 사회학적 의미에서 성역할이란 행위자의 생물학적 성에 부과된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해방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역할’이란 사회가(다소 임의적으로) 행위자의 생물학적 성에 연결시킨 성 연합행동을 행위자에게 할당한 것이다. 밀레트나 미첼과 같은 여성해방론자들에게 있어서 성역할은

21) Mitchell, Juliet(1973), "Women's Estate" in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g ed(1978), *Feminist Framework- Alternative Thoe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신인령 譯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1983.

22) Firestone, Shulamith(1970), "The Dialectic of Sex", in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g eds(1978), *Feminist FrameWork- Alternative Thoe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신인령 譯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1983.

여성들의 시야를 제한하고 또 한계지우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일종의 억압 형태이다(Eisenstein, 1984).

비슷한 맥락에서 셰리 오르너(Sherry Ortner)는²³⁾ 여성에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의 근원을 각 사회의 문화가 현상태보다 낮은 단계-일반화된 의미에서 '자연'-로 간주하는 것들을 여성과 연관짓는 데서 찾는다. 오르너는 여성 신체적 조건과 기능, 사회적 역할, 정신구조 등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자연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연과 문화의 중재자로 여겨진 반면, 남성은 문화 자체에 대한 통제자요 조정자로 간주되어 왔다고 결론지었다.

"여성의 다양한 상황적 측면(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은 여성의 존재를 자연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 여성의 존재가 자연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보는 관점은 역으로 사회제도 속에 구체적인 형태로 개입하여 여성의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²⁴⁾

초기 급진적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킨 밀레트나 미첼, 오르너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속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가부장제는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의 타자성을 과장하고 고수함으로써 견고히 유지되어 왔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⁵⁾

따라서 성역할의 사회적 구조화를 강조하는 위의 논자들에게 있어 여성의 특성이나 능력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 오르너는 '문화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되지 못한 여성의 실제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러한 힘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문화적 전제들과 이데올로기를 우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했다.²⁶⁾

이들은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분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억압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비판함으로써 생물학적 요인의 사회적 결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생물학적 성차의 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

23) Ortner, Sherry(1973), "Is Female to Male as Nature to Culture?", in Rosaldo, Michelle Zimbalist & L. Lamphere ed,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 Press 1974.

24) Ortner, 윗글, 87p.

25) Eisenstein 앞의 책, p 111.

26) Ortner, 윗글, 68p.

나 생물학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가치를 부여받기 보다는 여전히 주어진 것으로 혹은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 여성 억압의 근원이 되었던 성차에 대한 비판은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에 의존하는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에서 대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상적 인간형으로 제안된 양성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 두 성의 기질에 대한 평가와 조화의 문제로 옮겨가게 된 것을 보여준다. 양성주의는 양성 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차이가 억압의 근원이 된다는 인식으로부터 양성의 특징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양성주의자들은 성역할 정형화 체제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진 심리적 손상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양성인'이 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성주의는 여전히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틀을 넘어서지 못한 채로 둘을 꿰어 맞추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개인의 심리 전환을 통한 사회변화를 공언한다고 비판받는다(Eisenstein, 1984).²⁷⁾

대안으로서 양성주의 전략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자 여성의 경험과 특성에 대한 재해석이 여성심리학에 의해 시도되었다. 여성심리학에 의한 여성적 경험에 대한 재평가는 점차 여성 중심주의적 '분석'에서 여성 중심주의적 '대안'으로 진전되어,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경향의 급진 페미니즘이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게다 러너, 애드린느 리치, 수잔 그리핀을 위시한 일부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중심적 분석 내지 개념을 각자 이론적 준거로 삼기 시작했다. 즉 여성의 경험이야말로 자신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자, 전체 문화구조 속의 지배적 가치의 근원으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관점을 확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서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양극화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여성만이 지닌 경험의 여러 측면을 분리해내고 또 그것을 정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즉 여성의 경험은 잠재적으로 여성을 위한 권력 및 힘의 근원을 포함하는 동시에, 보다 확대하면 사회변동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²⁸⁾ 예컨대 밀러는 바로 전통적인 여성적 특성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을 싹틔울 수 있는 씨앗을 발견했다. 전통적 여성의

27) Eisenstein, 앞의 책, p.141.

28) Eisenstein, 앞의 책, p. 114.

힘을 발견함과 함께 자율성, 권력, 진실성 그리고 자결능력과 같은 개념들도 모두 여성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재규정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1970년대 초 레즈비언 여성해방론자들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남성이 아닌 여성과의 동일시를 통한 정체감을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급진적 레즈비언들은 여성의 우월성에 대한 개념과 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성의 위치가 제일차적인 관심 및 개입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여성해방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을 동일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변동의 근간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양성주의론으로부터 여성중심적 관적으로 변화시켜감으로써 밀레트와 화이어스톤이 처음으로 전개했던 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분석이 확대 심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차원에서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 본질주의적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Eisenstein, 1984)²⁹⁾

델리에게 있어 여성의 다음과 같은 전형은 곧바로 이상적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가 지닌 가장 뛰어난 자질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질 바로 그것이다. 즉 감정 이입, 직관, 적응력, 목표 지향적이기보다는 과정으로서 성장을 바라보는 인식, 창의성, 타인에 대해 보호해주려는 느낌, 감정적일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다.”³⁰⁾

델리의 경우 남성의 정신이 특별히 합리적이지도 정신적으로 강하지도 않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남성을 강간범이나 고문가, 여성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³¹⁾. 재거는 이러한 묘사가 남성적인 행위규범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적 예외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남성들이 왜 그러한 특성을 발전시켜왔는

29) 아이젠슈타인은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여성의 우월성을 생리적 요인에 둔다는 점. 둘째, 합리성과 명료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특성이므로 여성에게는 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아 이러한 특성을 부정한 점. 셋째 여성을 남성 폭력의 희생자로서 무시하고 수동적이며 무력한 존재로서 비판적으로 묘사한 점. 위의 책, 11장.

30) Daly, Mary, *Gyn-Ecology*, p4. Jagger의 책 111p에서 재인용.

31) Daly, Mary, “Woman hating is at the core of necrophilia”, *Gyn/Ecology*, (Boston: Beacon Press, 1979), p62.

힘을 발견함과 함께 자율성, 권력, 진실성 그리고 자결능력과 같은 개념들도 모두 여성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재규정될 필요가 있었다.

한편 1970년대 초 레즈비언 여성해방론자들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남성이 아닌 여성과의 동일시를 통한 정체감을 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급진적 레즈비언들은 여성의 우월성에 대한 개념과 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성의 위치가 제일차적인 관심 및 개입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여성해방론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을 동일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변동의 근간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양성주의론으로부터 여성중심적 관적으로 변화시켜감으로써 밀레트와 화이어스톤이 처음으로 전개했던 성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분석이 확대 심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차원에서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 본질주의적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Eisenstein, 1984)²⁹⁾

델리에게 있어 여성의 다음과 같은 전형은 곧바로 이상적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했을 때 우리가 지닌 가장 뛰어난 자질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질 바로 그것이다. 즉 감정 이입, 직관, 적응력, 목표 지향적이기보다는 과정으로서 성장을 바라보는 인식, 창의성, 타인에 대해 보호해주려는 느낌, 감정적일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다."³⁰⁾

델리의 경우 남성의 정신이 특별히 합리적이지도 정신적으로 강하지도 않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남성을 강간범이나 고문가, 여성을 중오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³¹⁾. 재거는 이러한 묘사가 남성적인 행위규범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적 예외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남성들이 왜 그러한 특성을 발전시켜왔는

29) 아이젠슈타인은 이러한 경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여성의 우월성을 생리적 요인에 둔다는 점. 둘째, 합리성과 명료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특성이므로 여성에게는 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아 이러한 특성을 부정한 점. 셋째 여성을 남성 폭력의 희생자로서 무시하고 수동적이며 무력한 존재로서 비관적으로 묘사한 점. 위의 책, 11장.

30) Daly, Mary, *Gyn-Ecology*, p4. Jagger의 책 111p에서 재인용.

31) Daly, Mary, "Woman hating is at the core of necrophilia", *Gyn/Ecology*, (Boston: Beacon Press, 1979), p62.

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의 정신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남성권력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한다(Jagger, 1983).

여성성에 대한 옹호나 본질주의적 정의에 대한 혐의는 델리나 그리핀을 비롯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저작에서 자주 지적되는 점이다. 실제로 빌은 에코페미니즘이 사회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정의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만약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여성 행동의 특성을 윤리학의 토대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성을 필연적으로 불변의 것이라 가정하는 것”으로 본다³²⁾. 따라서 빌의 관점에 의하면 여성을 자연과 연결짓는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생태학적인 것과 거리가 멀며, 억압적인 가부장제의 (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신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빌의 이와 같은 비판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면적이고 단순화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빌은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여성성의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강조와 사회적 구성을 혼란스럽게 오가고 있다고 보지만, 이는 오히려 일부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을 제외한 다수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여성성의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연관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적 특성의 근원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산물로서 출산이나 양육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되어온 생물학적 성별분업이다. 재거는 맑스의 실천 개념에 입각하여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분리될 수 없는 결합으로서 여성성 혹은 인간본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식적 실천을 하며 이 실천은 다시 새로운 욕구를 창출한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은 외부의 세계와 인간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재거는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본성이 인간 외적 본성과 개념적으로 구별되지 않듯이 인간본성의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도 구별되지 않는다고 본다³³⁾. 이렇게 볼 때, 여성의 본

32) Biehl, Janet (1991),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p26.

33) Jagger, Alison(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Rowman & Allenheld, 『여성해방이론과 인간본성』, 이론과 실천, 62p.

성은 여성의 실천, 그들의 생물학적 체질 그리고 육체적 사회적 환경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³⁴⁾. 재거는 역사적 상황 속에 존재하는 여성의 본성은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 노동의 결과와 조직화 방식의 결과 그리고 남성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성의 사회적 측면과 생물학적 측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거의 관점을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의 여성성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성을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 혹은 여성성이 생물학적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적인 것은 재거가 여성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간의 관계를 설정했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³⁵⁾ 여성성이나 여성의 경험을 이루는 요소들은 생물학적인 것이 역사적, 사회적인 것으로 정착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이 여성에게 특수하게 존재하는 가장 가치로운 인간자질로 간주하는 것들은 그것이 실재하는 것인지의 여부 보다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제껏 무시되어 온 여성의 능력에 대한 찬양은 그러한 능력이 무시되었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여성해방을 위한 잠재적이고 제한적 역할을 할 수 있다.

34) Jagger, 위의 책, p71.

35) 재거는 이러한 인식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간의 구분에 도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우리가 인간생물학을 부분적으로 사회에 의해 창조되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사회를 인간생물학에 대한 반응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간의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물학적 성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성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것들 서로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부분적으로는 사회적 성에 의해 생물학적 성이 창조되어 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변증적으로 그리고 분리되어질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둘 사이의 명확한 구별을 하는 것은 사실 '허위적 명확성'이 된다.", 위의 책, p131.

(2) 여성성 논쟁과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쟁점은 여성과 자연을 연관짓는 방법을 둘러싸고 만들어진다. 여성과 자연을 생태위기라는 주제 하에 연관짓는 방식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온 여성적 특성의 근원에 대한 이해가 에코페미니즘의 다양한 입장들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에코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착취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 구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기존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오거나 자연과 함께 평가절하되었던 여성적 가치들을 재평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향도 대부분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기본적 입장이다.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연관구조에 대한 분석은 두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서구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가부장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체계에 대한 고발이다.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지배 이론을 자연에 대해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여성과 자연을 연관짓는 이러한 경향은 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의 순환성, 상호의존성, 생산성 등이 여성의 특성이나 원리와 잘 연결된다고 주장하며 여성적 원리 혹은 '영성'을 에코페미니즘의 주요한 원리로 보기도 한다. 즉 여성적 원리와 생태적 원리는 서로 친화력을 가지며 이러한 친화력은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적 원리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관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된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의 개념은 에코페미니즘의 논자들마다 매우 커다란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정의내릴 수 없으나, 대체로 대안적 생태사회의 바탕이 될 여성적 원리로 표현되고 있다. 영성에 대한 주장은 에코페미니즘 논자들 내에서 일치되기 어려운 이론적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며, 그 본질주의적 혐의에 대한 비판과 실천적 긍정성 사이에서 옹호와 해체를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주장들은 대체로 가부장제가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한다는 주장을 자연의 파괴 현상으로 확대해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 구조와 원리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과 자연을 연관짓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여성에게 부여된 유사한 사회적 생산적 위치나 특성이라는 수동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성이 자연과 맺는 능동적 관계의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여성이 자연과 밀접한 연관성은 여성의 노동이나 사회적 역할이, 남성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는 역사적으로 다른 자연에 대한 물질적 관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Mies, Shiva: 1993) 이는 여성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구조 분석을 자연에 확대시켜 여성과 자연에 대한 물질적 착취와 지배의 구조를 비판하는 방법이다. 자연과 밀접한 연관하에 수행되는 제3세계 여성들의 노동 성격으로부터 환경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실천력을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빈곤과 영양상태 악화, 질병 등을 통해 드러나는 환경파괴의 결과들은, 지금의 생태파괴로 인한 피해가 특정 대상과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³⁶⁾

양육자로서, 수질과 숲의 관리자로서, 농업생산자로서 여성의 지위는 특히 제3세계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그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데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제3세계뿐만 아니라, 양육과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환경파괴에 대한 보다 민감한 영향과 반응,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연과 맺고 있는 이런 보다 밀접한 관계가 여성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더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천적으로 제3세계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환경운동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성역할에 기반한 자연친화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운동의 성장에서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과정이 가부장제적 성역할을 강화하고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여성적 힘이나 가치들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나 운동을 강화하려는 주장이 내용적으로 타당한 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여성적 가치와 방법에 대한 옹호가 결과적으로 여성들 자신을 위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6) 여성과 어린이의 세계적인 빈곤화와 영양 상태 악화에 관한 실태는 이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요한 관심사이다. Shiva & Mies(1993), *Ecofeminism*, Zed Book, chap5 참조.

이렇게 보았을 때 환경운동을 통한 여성의 정치적 주체 형성 과정에서 여성성(성역할의 측면)이 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도 장점과 함께 동일한 난점을 가지고 있다³⁷⁾. 건강, 발전, 양육 환경을 둘러싼 여성들의 정치화 과정과, 여성성이나 여성의 성역할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를 주목하는 것은 여성이 정치적 주체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고무하지만, 이 과정 전체는 여성의 성역할이 긍정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쟁점은 여성성이 생물학적인가 사회적인가 혹은, 일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과 자연의 묶임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제2기 여성운동의 주요한 논쟁으로 여성성의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과 마스주의 여성해방론은 여성의 생물학적 속성을 문화적 속성과 확실히 구분해서 보고, 이를 정치적 영역과 무관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성과 육아를 포함한 생물학적 성차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구별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성차의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상호 규정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생물학 결정론과 생물학에 대한 무관심을 거부하고자 한다.

제 2 절. 여성성과 에코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내부의 복잡한 경향성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가지로 시도되고 있다. 예로 빌과 같은 학자는 심리생물적 에코페미니즘과 사회구성적 에코페미니즘으로, 델러는 본질주의적 에코페미니즘과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으로, 쿤즈는 급진적 에코페미니즘,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 제3세계적 에코페미니즘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화는 하나의 이론으로 굳어졌다기 보다는 사실 경향성으로만 존재한다(문순홍, 1994:84).

37) 이 글의 4장 내용 참고.

이러한 분류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성의 정신적 성향과 피지배자로서의 평가절하라는 측면에서 자연의 연관, 혹은 동일성을 강조하는 본질적 경향과, 여성과 자연이 맺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연관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누는 점에서 비슷하다³⁸⁾. 벨러나 빌이 특히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데 빌의 경우 심리-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과 사회구성적 에코페미니즘으로 나누고 있다. 빌에 의하면 전자는 여성의 보다 생태학적 자질과 가치를 가정하는 심리-생물학적 주장을 한다. 후자의 경향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왜곡된 것이고 유용한 허구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생물학적 본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³⁹⁾. 이 논문에서 분류한 심리-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 혹은 영성적 에코페미니즘⁴⁰⁾과 사회적/유물론적

38) 여성을 자연과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로 주장하는 것은 억압체계에 대한 비판의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 경우, 여성과 자연의 연관은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에서 연관된다. 이를 '부정적 연관'이라 한다면, 생태학적 원리의 긍정성-상호연관성, 보존성, 창조성 등-을 여성의 생산적 능력과 연관짓는 방법은 생태 파괴나 여성억압에 저항하는 운동의 주체로서의 가능성이나 원리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 혹은 '공세적' 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경향으로 분류되는 입장들은 주로 '공세적' 연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9) Biehl, Janet (1991),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19p. 빌이 보기에 이 두가지 경향은 한 사람의 에코페미니스트에게도 혼란스럽게 섞여있으며 이는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비일관성과 모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빌의 이러한 견해는 여성적 특성의 사회적 생물학적 측면의 변증법적 연관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빌은 서구의 합리주의 전통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실재와 은유의 엄격히 분리, 이성과 감성의 구분을 유지함에 있어서 다른 에코페미니스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 이러한 경향을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이라고 이름붙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성' 개념이 지나치게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세계 여성들은 자본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에서 여성적 원리를 대안적인 사회경제적 원리로 내세우는 데, 이런 원리는 종종 여성의 고유한 경험에 기반한, 여성의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가르키기도 하기 때문이다(Mies, Shiva). 그러나 이 글에서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으로 분류한 미스나 쉬바의 입장에서 '영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추출되는 생태적 원리로서 주기성, 순환성, 자기회복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대안적 원리로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

에코페미니즘도 대체로 위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실천적 토대가 되고 있는 현실들의 공간적, 계층적 차원의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론적 차원에서 전자는 본질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백인 여성들의 급진적 페미니즘과, 후자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또 다른 타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색인종이나 제3세계 여성의 페미니즘으로 대비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는 사회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과 여성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다. 이들의 이론적 입장은 여성들의 생태저항운동의 실례들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 다른 백인 여성해방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에 영향을 미친 백인·문화적 여성해방론자들은 모든 여성들이 남성에 의한 억압의 보편적인 희생자로서 찬양되면서도 인종과 계층, 민족을 달리하는 여성들의 삶과 역사적 다양성을 적절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King, 1990).

실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의 다양한 분류의 예들 속에는 서로 대비되는 두개의 실천적 흐름으로, 여성 중심적인 문화적 실천과 생태과파에 대한 직접적이고 생존권적인 실천들을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현실적 기반은 풀뿌리(지역)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여성 중심적인 문화적 실천을 강조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관심과 연결된 에코페미니즘의 흐름은 1980년대 90년대를 통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풀뿌리 환경운동과 다소 거리를 갖고 있다.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간의 구분을 뛰어넘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 여러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여성이 환경운동에 주도적인 이유의 어떤 측면들을 설명하는 데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의 노동 형태를 통해 형성된 여성적 특성이나 자질을 강조하는 동시에 환경운동을 통한 정치화 경험을 여성해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델러나빌의 구분 방식을 통해 여성이 친환경성을 설명하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들을 나누어 보고 있다.

구의 '영성'을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모두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묶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1) 심리-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

급진적 여성해방론에 영향받은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에 부여된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근대 과학에 대해 비판해 왔다. 그들은 근대 과학이 여성과 남성, 자연과 문화의 분열을 영속화시키는 이원론적이고 위계적이며 반생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안적 연구방법과 문화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 지구를 성스러운 것으로 숭배하던 고대 여신 문화의 신화와 상징들은 문화적,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통털어 근대 과학의 기반에 깔린 원리는 반생태적이고 반여성적인 성격을 갖는다. 연구대상과 연구주체 간의 분리, 대상을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전능한 주체로서 연구자의 지위, 연구주체의 엄격한 가치 중립 유지 등이 페미니즘의 과학비판에서 주요한 비판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연과 여성을 다루는 근대 이성의 주체가 가지는 억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과학 일반을 비판하는 데 대해 사회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근대 이후 성취된 합리성의 긍정적 유산마저 부정하는 반이성주의로 보고 반대하기도 한다.(Biehl: 1991)

그러나 근본생태론자와 더불어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성 자체의 위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Christ, 1990). 영성(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은 에코페미니스트들 내에서도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며 대체로 근본생태론의 영향을 받거나, 여성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성해방론자들 사이에서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근본생태론에 직접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성'의 원리를 여성의 사회적 성역할과 거기서 비롯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바라보고 옹호할 수도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여성적 특성으로서 '영성'은 생물학적인 것으로도, 사회적 실천에 기반한 것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생태학적 원리를 수용한 '영성'의 개념이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차이를 넘어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스타호크(Starhawk)는 지구에 기초한 영성은 내재성과 상호연관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가지 기본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내재성이란 지구가 살아있는 존

재라는 인식에 기반해 영, 신성, 신 등이 살아있는 우주 곳곳에 내재한다고 보는 존중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주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할 때, 그것은 곧 유기체를 비유하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상호연관성은 공동체의 창조와 지구 보호를 위한 공동의 실천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Starhawk, 1990) 그럼에도 여성의 생물학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자연친화성을 강조하는 경우와 여성의 직접적 생산활동 가부장제 하의 역할로부터 부여되는 생태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의 영성은 서로 다른 내포를 갖고 있다. 전자가 여신 숭배의 시대에서 비롯된 신비적 성향의 영성이 강조된다면 후자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자연환경과 관계맺는 물질적 방식의 차이에 주목한다. 문화구성적 에코페미니즘의 분석은 대체로 개념과 문화적 의미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과 자연의 연관은 매우 추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근대과학과 이성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역사적이고 제한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근대과학에 대한 비판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사회과학에 맞춰지다가 최근에 들어 자연과학에도 확장되었다.⁴¹⁾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근대과학의 주된 흐름-환원주의적이고 기계적인 패러다임-은 15-17세기에 걸친 과학혁명의 과정에서 기원한 서구인들의 특정한 관념으로 규정된다.⁴²⁾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는 [The Death of Nature]에서 근대 자연과학-기계학과 물리학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자연을 종속시키고 파괴시킴으로서 발전된 것임을 보여주었다. 유기적 전체에 대한 폭력적 파괴가 없었다면 새로운

41) Maria Mjies, "Feminist Reaserch: Science, Violence and Responsibility",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s).

42) Vandana Shiva, "Reductionism and Regeneration: A Crisis in Sciences",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s). p22.

자연과학적 지식들은 얻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에로스나 감정, 열정 등은 두뇌와 이성에 의해 복속되며, 과학자들은 남성 연구자 공동체 속에서 전능함과 초월성의 환상을 생산한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와 주체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은 근대과학의 방법과 지식체계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과학과 윤리, 과학과 책임의 극단적인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계몽주의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이원론과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에 집중된다. 서구문화의 대부분의 이원론-주/객, 남/녀, 감성/이성, 정신/육체, 문명(이성)/자연-은 인간 억압의 보편적 구조를 만들어내며 이성적 주체에 의한 통제와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과학이 담고 있는 이러한 권력의 내용은 항상 보편성과 객관성의 이름으로 은폐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원론의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원론의 극복을 위한 전략이다.

미스(Maria Mjies)에 의하면 대안적 패러다임의 과학은 무한한 지식과 전능한 지식의 권력에 대한 전제에서가 아니라 상호의존성과 인간의 한계성, 감각과 경험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한 상황지워진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43) 여성주의적 연구방법의 원칙은 이러한 비판하에 당파성과 상호성, 행동주의와 경험을 통한 검증 등을 기반으로 한다. 44)

다른 한편으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이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하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편적인 범주를 부정하고 상황지워진 지식만을, 경험을 통해 검증된 지식만을 신뢰할 것을 주장한다. 45) 지식의

43) 윗글, 46-47, 52p.

44) 이러한 원칙은 페미니즘 인식론을 주장하는 Lori Gruen(1994)의 글("Toward An Ecofeminist Moral Epistemology" in Warren, Karen eds(1994),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이나, Maria Mjies의 윗글에서, 그리고 근대과학이나 이원론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이다.

45) 경험-원리에 대한 강조는 다음을 보라. Lori Gruen, "Toward An Ecofeminist Moral Epistemology", in *Ecological Feminism*, 7장. 한편 Ynestra King은 그녀의 글, "Healing The Wounds: Feminism Ecology, And The Nature/Culture Dualism" (in *HEALING THE WOUNDS*)에서, 문화/자연의 이원론 내의 여성의 위치와 반이원론적이고 변증법적 이론에 대한 페미니즘 이론의 요구를 강조

제한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에코페미니즘의 과학 비판은, 여성과 자연의 주변화되고 식민화된 정체성을 지적함으로써 서구과학이 숨기고 있는 인식론적 주체를 드러낸 보인다. 과학적 담론의 수동적 대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은 자연과 달리, 지식의 생산에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타자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갖는다. 지식으로부터 분리된 대상이나 타자가 된다는 것은, 정신이나 이성이 결여된 '물질'-질료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수동적이고 침묵할 것을 강요받는 연구대상과, 불편부당하고 '가치중립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지식 주체로서의 남성을 대립시키는 인식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⁴⁶⁾

최근들어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의 중심적 개념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페미니즘적 지식생산을 담보하고 지배하는 중심적 사고, 주요한 개념, 평가와 해석의 기준, 방법론적 틀을 평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독특한 여성만의 인식론적 범주들을 생산하고자 노력한다.

신화분석과 '영성'

급진적 여성해방론의 영향을 받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고대의 여신 숭배 전통에서 여성적 원리나, '영성'의 긍정성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다. 데메테르(Demeter)와 페르세포네(Persephone) 신화를 재해석하고 남성신과 함께 가부장제 신화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과 자연의 주기가 갖는 친밀성은 대안적 세계관을 구상하는 데 중심이 되고 있다. 자기조절적인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구의 활동에 대한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적 가설인 가이아(Gaia)설은 어머니 지구(Mother Earth)에 대한 오랜 신화로부터 그 이름을 빌어왔다(Lovelock, 1979)⁴⁷⁾. 아이슬러(Eisler, Riane)에 의하면 가이아설에서 가장 놀

한다.

46) Braidotti, Rosi 外(1994), *Wome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Zed Book Ltd),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譯, 나라사랑, 1995. p 70.

47) 윌리엄 콜딩이라는 공상과학 소설가가 러브록의 가설에 붙여 준 '가이아'는 그리

라운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여신을 숭배하는 선사 사회의 신앙체계를 과학적으로 정립한 점이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선사시대의 사회는 자연과 영의 여신, 위대한 어머니 이자 생명을 주는 모든 이의 창조자를 숭배해왔다. 이러한 고대 사회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재발견되고 있다(Eisler, 1990). 고대 여신숭배의 전통을 지적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전적으로 선사시대 사회를 유토피아적 이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그 사회는 적어도 오늘날 생태계적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진 사회였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그때는 지구가 경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들과 보살핌, 연민과 비폭력 같은 여성적 가치들이 남성적 가치라 불리는 정복과 지배 등에 종속되지 않았던 사회였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조직이 보였던 고대 미노아 크레타 문명을 발굴했던 한 고고학자 에 의하면 그 사회에서는 모든 창조물과 조화의 근원인 자연 여신에 대한 불타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제, 수공업자, 모계혈족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그 사회의 평화적이고 창조적인 면들을 강조하기도 한다(Eisler, 1990).⁴⁸⁾

신화를 분석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전통과 그 파괴과정을 조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이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신화는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신비들- 출생이나 성(性), 죽음 그리고 사랑을 조명한 것이다. 두 여신을 숭배하는 제례에서 사람들은 곡식의 추수를 포함하여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였다. 이 여신숭배 전통의 분석에서는 어머니 중심의 삶을 살았던 고대의 기억이 재조명되고 있다. 두 여신의 신화는 고대생활의 종결과 분리를 가져온 유괴(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제우스와 하데스가 공모하여 납치한 사실)에 뒤따라 장구한 가부장적 계층의 통치시대가 등장하는 과정을

스 신화에 등장하는 대지의 여신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게(Ge)라고도 불려서 지리학(Geography), 지질학(Geology)과 같은 학문의 명칭 앞에 붙기도 한다.

48) Eisler, Riane(1990), "The Gaia Tradition and Partnership Future: An Ecofeminist Manifesto",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상징한다. 데메테르 신화는 어머니 지구와 그녀의 풍부한 창조력과 건디어 내는 사랑과 성의 성스러움, 죽음의 필연성과 영혼의 불명성에 대한 믿음 등을 보여 준다(Keller, 1990).⁴⁹⁾

제우스 신화는 초월적 존재로 남성을 묘사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여성을 평가 절하하는 전통을 잘 보여준다. 제우스의 머리로부터 나온 서구의 남성 부르주아 주체는 자신으로부터 유기체의 영역을 추출해 공민이 되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어린 시절을 던져버리고 어머니의 권능을 빼앗고 감성화하여 그녀를 자연에 제물로 바친다(King, 1993). 남성들은 부신과 그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점차 개별화하게 되었고, 개별화로 인한 공포는 남성들이 신을 전능한, 분리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자아로 해석하게끔 만들었다. 남성들은 그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남성신을 만들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과 자연 그리고 그 자신과 몸- 즉 그 자신의 종속성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으로 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놓았다. 그 결과 여성들이 위대한 여신과 연관되어 개별화되는 과정은 무엇이었던 간에 새롭게 개체화된 남성들에 의해 억압당하였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위대한 모신과 땅과 잠재 의식적인 이성이 결여된, 집단적, 물질적, 감정적 영역에 지나치게 묶여 있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여성들은 개체화의 과정을 밟기에 부적합한 존재일 뿐이며 '질투심 많은' 부신의 숭배자들은 '거짓' 신들인 위대한 어머니와 위대한 여신의 숭배자들을 살해하고 성전을 파괴해 버렸다(Zimmerman, 1990).

고대 사회에 대한 조명을 통해 여성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에 대해 빌 (Biehl, J)은, 성적 평화와 평등의 황금시대라는 신화가 문화인류학적 증거에 반대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 위의 주장들은 반동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세상을 포함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찬양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녀는 또 에코페미니즘이 영성을 지향하는 것은 에코페미니즘이 이성을 평가절하하는 신비주의적 경향에 빠져 스스로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성은 여전히 현존 질서를 비판하는 도구로서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iehl, 1991). 그러나 다른 에코페미니스트는 영성에 대한 지향이 에코페미니즘에 생명력을 불어

49) Keller, Mara Lynn(1990), "The Eleusinian Mysteries: Religion of Demeter and Persephone", 앞의 책.

넣으며 백인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의 연결을 만들어 내는 토대가 되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King, 1993).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제2의 성]을 통해 선구적으로 여성/자연의 연관성을 단절시킬 것을 주장했던 보바르는 생태학을 여성주의 관심으로 삼는 것을 개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퇴행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데 사용된 음식이다. ..(이는) 다시 한 번 여성이 '타자(他者)'라고 규정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그들은 '제2의 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평화를 사랑해야 하는가? 나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 둘 다의 공동관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50)

그녀는 이러한 연결이야말로 해방을 위해 투쟁하려는 여성들을 분산시키며, 그들의 정력을 생태학이나 평화와 같은 '부수적인 영역'으로 낭비시킨다고 주장한다. 보바르의 이와 같은 비판은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의 본질주의적 함정을 명료하게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생태위기에 대해 여성이 대응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과 여성해방에 대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일면적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성을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즘이 현실도피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51). 에코페미니즘 내 영성에 대한 비판은 주로 좌파의 전

50) Alice Schwarzer(1984), *After the Second Sex: Conversation with Simone de Beauvoir*, (New York: Pantheon), p103. Ynestra King(1990), "Healing the Wounds: Feminism, Ecology, and the Nature/Culture Dualism",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에서 재인용.

51) "예컨대 독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비현실적 영역으로 후퇴하여 현실과 분리됨으로써 남성의 권력을 온존시키는 정조라고 비판받았다.",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Introduction",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p18.

통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연결시키고 여전히 역사의 물질적 개념에 집착하는 여성들은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의 유물론(materialism)에 대한 비판이 자본주의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Mies & Shiva, 1990).

그리고 똑같이 영성이나 여성적 원리에 강조하더라도 서구의 에코페미니즘과 제 3세계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의미는 다를 수 밖에 없다. 제 3세계 여성들에게 영성에 대한 강조는 유물론적인 것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자연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이며 그들은 그러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 3세계 여성의 생존적 필요에 내재한 자연의 한계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에코페미니즘이 입지한 유물론이다.⁵²⁾

(2)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의 타고난 특성이나 정신적 능력에 대한 강조보다는 여성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장점들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억압의 경험과 노동의 성격으로부터 기인한 특성들을 강조하는 것은 물 역사적이지도 생물학적이지도 않다. 여성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입장과 유사하다.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인간본성이 인간생물학과 인간사회, 물리환경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인간노동에 의해 중재되고 있다. 주어진 사회에서 지배적인 노동의 특정 형태는 그 사회의 특수한 육체적 심리적 인간 특성을 창조한다.”⁵³⁾

52) Mies & Shiva, 위의 글, p18.

53) Jagger, 위의 책, 143p.

따라서 여성을 생태저항과 연결시키는 데 있어, 본성과 경험의 관계는 결정론이나 구성론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본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경험은 그러한 본성을 통해 이해된다.

“여성이 생태 파괴와 핵 멸망의 위협에 대항해 싸울 때마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폭력과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에 대한 폭력의 연관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된다.....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본성과 경험 모두를 통해 깊고 특별한 이해를 한다.”⁵⁴⁾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유물론적으로 분석하는 논자들은 주로 자본주의 착취구조의 반생태적 측면을 여성이 자연에 대해 맺는 물질적 관계에 의존해 설명하고자 한다. 환경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가 어떻게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가를 분석하는 출발점은 인간이 자연과 맺는 물질적 관계-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분석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들은 또한 인간이 자연과 맺는 물질적 관계에서 인간 노동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맑스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연이 수행하는 생산과정과 인간의 노동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Salleh: 1993)에서 생태맑스주의자들의 논지와 유사하다. 생태위기에 대한 분석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개념	생태맑스주의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
재생산	생산조건/재생산 강조	여성의 재생산 노동 강조
생산	생산개념의 확대: 자연 과정	생산개념의 확대: 인간 재생산
反생태적 사회원리	자본축적 논리	자본주의적 생산성 개념

표 2. 생태맑스주의와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의 주요 개념 비교.

54) Mies & Shiva(1990), "Introduction: ...", in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여성이 혹은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는 그들의 물질적 생활 기반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결합하는' 생산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해 맑스주의의 이론을 연결, 수정시키고자 하는 생태맑스주의는 여성이 자연과 맺는 물질적 관계와 여기에서 오는 여성의 경험에 치중하는 경향의 에코페미니즘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생태적 맑스주의의 출발점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생산력과 생산조건 사이의 모순에서 환경위기의 근원을 찾는 것이다. 인간노동력이나 외적 자연과, 사회적 소통구조 등을 포함하는 생산조건은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거나 재생산되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자본의 재생산을 위해 정치화된다(O'Connor, 1988)⁵⁵. 이러한 생산조건인 재생산은, 생물학적 재생산을 포함한 사회적 재생산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이들의 피해를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분석(Mies, & Shiva, 1993)과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생태맑스주의자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무시되어 온 자연력에 의한 노동대상의 수집, 변형과정을 재조명하고 있다(Benton, 1989)⁵⁶.

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영역을 매개하는 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주로 제3세계 여성—의 기여와 여성/자연의 결합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맑스주의자들이 자연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과정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재평가하고 강조한다. 여성의 재생산 노동은 국민총생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체 생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된다. 여성의 일은 시장경제의 눈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의 양과 종류가 방대하며,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중적 업무를 수행하고 부문간 경제활동을 이루는 여성의 일과 지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핵심적이다.(Mies: 1993) 이러한 여성의 친생태적 생산활동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이며, 이로 인해 여성과 아이, 제3세계 빈민의 생활환경은 집중적으로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55) O'Connor, J. (1988), "Capitalism, Nature, Socialism", *CNS*(1), 이강원 역,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 이론적 서설', <공간과 사회> 3호 1993

56) Benton, Ted (1989), "Marxism and Natural Limits: An Ecological Critique and Reconstruction", *New Left Review*, 178: 51.

따라서 생산조건의 재생산에 대한 자본주의적 위협이란 근원적으로 사회적-자연적 환경의 파괴를 의미하며 특히 생존의 직접적인 수단을 자연에 의존하는 이들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성장/발전에 대한 비판

개발이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진화적이고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의 출판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많은 생태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은 생태계를 파괴하며 불평등과 빈곤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3세계의 사례에서 보았을 경우, 그들의 생활은 산업 개발 이후 오히려 절대적이고 물질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착취를 통해 서구국가들은 200년 전에 비해 오늘날 46배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한정된 세계에서 부국의 증가하는 부는 바로 제3세계의 희생물 땀가로 한 것이었다.⁵⁷⁾ 결과적으로 상품생산을 근간으로 하는 성장전략은 잉여가치의 선진국으로의 유입을 의미할 뿐, 제3세계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성은 아니었다.

생존을 지속시켜주던 기반이 상품 생산의 연쇄고리에 의해 파괴됨으로써, 자연과 여성의 노동에 의존해왔던 제 3세계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잘못된 발전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생태계의 파괴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제3세계 여성의 생존 기반을 침식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성과 자연의 노동을 간과하고 상품 생산의 발달로 간주되는 '생산성'은, '서구에 대비한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빈곤'을 '절대적이고 물질적인 빈곤'으로 변화시켰다. 문화적 개념의 생존적 생활은 '가난'이라 하여, 무소유와 박탈로 인한 물질적 '빈곤'으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문화적으로 인식된 가난은 실제로 물질적 가난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기 충족을 통해 모든 기본적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57) Maria Mjies, "Liberating The Consumer", in *ECOFEMINISM*, chap. 17.

생존경제가 박탈되었다는 의미에서의 가난이 아니다.⁵⁸⁾ 생태학적으로 바람직한 생의 원리에서 보았을 때, 발전의 위기는 문화적 빈곤과 물질적 빈곤간의, 그리고 상품생산의 성장과 기본적 욕구충족간의 동일시에 시작된다.

제3세계의 '저발전의 발전'은 자원을 낭비하는 기술과 산업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집단들을 물질적 빈곤에 빠뜨린다는 교훈을 준다. 경제성장의 비용이 불평등하게 전가되는 기존의 발전모델은 잉여가치가 이동되는 서구 선진국과 제3세계 상층의 반생태적인 생활/소비 패턴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러므로, 상품경제의 양적 팽창이 가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식의 개발전략은 생태적 한계와 잉여가치/비용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약해진다. 대안적 발전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따라서, 성장과 생산성을 생명- 때로 자원의 범주로만 이해되는 생물체: 산림, 동물량과 다양성 등-의 생산과 관련지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이 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감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적극적 활용을 강조한다면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은 자연 환경과 밀접한 연관 하에 수행되는 여성의 생산 노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착취와 여성 지배의 복합적 연관을 추적한다⁵⁹⁾. 다시 말해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이 피지배자로서 즉 타자로서 소외된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면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지배체계를 비판하는 초기 급진주의, 사회주의,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적 비판적 전통을 여성

58) 윗글, 199p.

59) 물론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도 여성의 심리적 자질을 긍정적으로 강조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 강조점을 달리하여 구분한 이유는 에코페미니즘 논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내에서 이미 두가지 측면이 작용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앨리슨 재거는 "급진적 여성해방론은 여성의 통상적인 생물학적 경험을 강조하는 측면과 인종·계급으로 구분된 여성의 경험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나중의 집단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g eds(1978), *Feminist Framework-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신인령 譯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1983, p18에서 인용.

과 자연에 대한 지배/피지배의 복합적 관계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여성적 원리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제한적 긍정성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주체와 타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상호결합된 복잡한 지배 관계의 교정을 위해서는 그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에 대한 분석이, 에코페미니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돌보고 양육하는 여성의 역할이 가족의 건강과 관련하여 환경파괴에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과정은 제3세계 여성과 서구 여성들의 공동체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세계 여성들의 경우 그들 활동의 주요 영역은 여전히 자연 환경과의 밀접한 교류를 필요로 하며, 물과 대지, 숲의 보호가 삶의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 자원을 파괴하는 방식의 개발과 기술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대항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제3세계 농촌 여성들의 투쟁은 직접적으로 생태적인 투쟁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러한 투쟁 사례들은, 여성과 자연의 물질적 연관과 이에 기반한 여성의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지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제 4 장. 여성환경운동과 여성의 정치적 주체형성 과정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 4장에서는 여성성에 대해 다른 접근을 보이는 에코페미니즘의 두가지 입장 중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에 기반해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살펴볼 것이다.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할당된 역할과 경험에서 비롯된 여성적 특성들은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를 통한 정치적 주체 형성의 계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성의 사회적 요소에 기반해 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심리적 자질들을 인정하고, 여성들의 본질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자연과의 친화력을 강조한다. 아래에서는 여성과 자연의 맺고 있는 실질적인 연관에 기반해, 여성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발전시키게 되는 정치적 의식의 성장과 자기정체감의 발견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여성해방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여성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환경운동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여성과 자연의 연관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서 여성이 더 우월한 실천적 능력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심리 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과 사회적 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두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왜 여성이 자연과 더 긴밀한 물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연관이 여성억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문제는 엄밀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⁶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많은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참

60) 빌은 생물학적이든 사회적 구성으로 보든지 간에 에코페미니즘이, 19세기 이대

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여성/자연의 연관이 내포한 실천적인 긍정성을 보여줬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나 가져온 결과들이 여성해방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가 어쩌면 보다 구체적인 에코페미니즘의 논제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여성 노동의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여성의 자연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하는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을 통해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를 설명할 것이다.

제 3세계의 여성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된 실천 투쟁이라든가, 가족의 건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풀뿌리 환경운동 등은 여성이 자연과 맺고 있는 물질적 관계로부터 남성과 다른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배경은 여성 노동의 사회적 의미에서 찾아진다. 여성이 수행해 온 다양한 활동이 여성을 환경파괴에 대한 긴밀한 이해 관계를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는 생물종과 생태계 보호보다는 공동체와 가족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그들의 모성이나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활동, 관심들이 운동의 참여 동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제3세계 여성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생산활동과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이 그들이 환경파괴를 저지하는 데 나서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다수 여성들의 동기와 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자연에 대해 갖고 있는 독특한 영적 능력이나 심리적 교감과 같은 추상적 차원보다는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과 역할의 사회적 의미 속에서 더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제 3세계 여성들의 생존과 삶의 보호를 위한 투쟁은 자연과 여성의 연관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여성은 자연과 환경파괴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창조성과 삶의 유지자로서 연결된다. 또한 여성이 자연과 맺는

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여성의 영역'으로 본다고 비판한다. Biehl, Janet (1991),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이러한 비판은 생태학의 어원을 가정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빌의 이러한 견해는 여성이 자연과 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주장 안에 들어있는 규범적 주장과 사실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성의 영역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사회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제기되기도 한다.

긴밀한 연관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기 보다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생태학적 사회들이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 등에 의해 붕괴된다고 판단될 때 남성들은 그곳을 떠나거나 상품 경제 속에 편입된다. 반면 여성들은 음식과 식수,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의 역할을 통해 생명과 자연에 지속적인 연관을 맺는다⁶¹⁾. 사실 인류공동체 역사의 초기에 여성은 식량채집을 통해서 농업의 원리를 발견했으며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과정을 통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처럼 인류 최초로 농업과 목축을 시작한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의 경우 식량의 생산과 식수 및 연료수집의 장본인이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자원의 주관리자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에코페미니즘 이론들이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를 더 적절히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환경파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 속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접근은 셀리나 미스, 쉬바의 주장에서 보듯이 여성이 맡고 있는 역할이나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다. 셀리(Salleh)의 경우 여성의 노동경험을 생태학적 비판을 위한 토대이자, 지속 가능한 활동의 모델로 간주된다. 그녀는 '자연-여성-노동'의 연관을 자본주의의 근원적 모순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모순이 역사적 주체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이 모순이란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초국적 기업의 헤게모니 확장은 자연과 여성의 종속에 의지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여성이 자본, 노동, 자연과 맺는 차별적 관계와 생태적 반응의 차이는 이러한 모순을 이해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Salleh, 1993)⁶²⁾.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보다 자연과 밀접한 연관하에 수행된다거나 환경파괴에 민감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여성의 노동은 자연과 직접적인 교류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이다.

61) Shiva, Vandana (1989),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 Zed Book), p.42,47.

62) Salleh, Ariel(1993), "Nature, Women, Labor, Capital: Living the Deepest Contradiction", Martin O'Connor eds, *Is Capitalism Sustainable?* (N.Y.: The Guilfords Press).

예를 들어 제 3세계 여성들의 노동은 경작과 채집 등 자연환경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며,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산업국가의 여성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활동은 가정의 관리와 양육활동에 집중됨으로써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음식물과 환경의 오염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둘째로 여성의 노동은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남성과 자연을 매개한다. 셀리는 남성과 자연 사이에 있는 여성의 전통적 지위야말로 자본주의의 최초의 모순이며 아마도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모순일 것이라 주장한다. 생산관계의 안팎에서 '노동'이나 '노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을 공짜로 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은 한푼의 대여료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여성이 손과 머리를 이용해 수행한 노동은 창조적인 인간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 조건- '자연자원'으로 간주된다. 여성 노동의 소외는 자본주의적 생산 개념에서도 드러난다. 노동력을 생산하든 유지하든 여성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은 생산에 반대되는 '재생산'으로 불리운다. '재생산'이라는 말은 이차적이고 왜소한 활동으로 최초의 역사적 행동의 '생산'과 구분되는 말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재생산'은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은 자본주의 노동분업 내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고 처분가능하며 대상화될 수 있다. 자연의 매개자로서 여성의 지위는 자본주의와 노동자 사이의 거래가 일어나는 최초의 조건이 된다(Salleh, 1993).

셋째로 여성의 노동은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여성들은 특정한 공간을 통해 벌어지는 환경파괴의 위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 여성이 일상영역에서, 지역사회운동의 주역으로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된다.

“...환경은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일상생활상의 주제인 반면, 여성은 일상적 생활공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적으로도 다수인 까닭에 지역사회의 가능성있는 일꾼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특히 일꾼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주목은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지역사회의 정보순환 루트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자명해진다.”⁶³⁾

“여성들은 공동체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공동체야 말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에서 맹활약하는 여성들은 ‘자연’에 추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 다가온 위협들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의 위와 같은 성격에서 여성의 친생태적 능력에 대한 몇 가지 주장들이 가능하다. 우선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지속가능한 생산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품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의존과 최소한의 자연파괴로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연의 선물’을 중시하는 여성들의 노동은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했을 때, 필요노동이 기술을 통해 자연에 부과해야 할 짐이라는 생산력 진보의 관념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생존적 경제에서는 노동운동과의 연대전략이라는 구상도 유효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자기 충족적이고 탈중심화된 생산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생산관계에서 여성과 남성이 즐겁고 호혜적으로 외적 자연과 노동하며 더 이상 국제적 축적과 성별노동분업에 의해 소외받지 않을 것을 추구한다⁶⁵⁾.

다른 하나는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생명 생산과 보호 여성이 다른 생명체를 고려하는데 보다 익숙하다는 주장이다. 남녀의 서로 다른 신체조직은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게 한다. 이는 맑스의 주장대로 인간 의식이 물질환경과의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63) 문순홍(1994), “에코페미니즘과 여성 정치세력화”, 계간 대화 3호, p 90. 이 글에서 문순홍은 여성이 지역사회의 정보형성과 교류에서 갖는 우위의 부정적 측면도 인식하고 있다. 운동에 자원이 될 수 있는 점은 달리 보면 여성의 활동 공간 및 내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없이 환경운동에서 발휘되는 여성의 운동 참여에서의 장점을 강조할 경우 기존의 성역할 분업의 이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64) Hamilton, Cynthia(1990), “Women, Home, and Community: The Struggle in an Urban Environment”,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p.217.

65) Salleh(1993), 윗글 122p.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인이 보통사람과 다른 독특한 인지 능력 개발하듯이 여성과 남성도 차별적 능력을 갖게 되고, 그들이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 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⁶⁶⁾ 여성은 출산기능 속에서 자연과 생명과의 특수한 교감능력을 획득하게 되며 여성의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반생태적 결과들을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정교화된 성(sex/gender)차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여성이 역사적 주체로서 일시적으로 훨씬 뛰어나다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미화 과정 속의 주체'라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제한적 개념은 그 자체를 사회질서에 충돌시키면서 형성, 재형성한다. 여성의 경제적 주변화와 모순에 기반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여성은 자연-여성-노동의 연관 속에 여성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주변화된 목소리에 전략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역사적이거나 본질주의적이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정당화된(Salleh, 1993).

지역공동체 운동이나 주민환경운동 등과 같은 사례들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에 대한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주장을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을 자연과 연관시키는 것이 실천적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긴 하지만, 여성해방적 측면에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에코페미니즘 이론 내에 또 다른 내부적 쟁점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환경정치 참여과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보면서 따져볼 수 있다.

제 2 절. 환경운동을 통한 여성의 정치화 과정

환경운동을 통한 여성의 정치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성적차별이 환경피해를 어떻게 집중시키는가를 다루기보다는 여성이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운동 주체로서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실 생태적 피해의 불평등한 배분은 인종이나 계급, 소수민족에서 그런 것처럼, 성별에 따라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피해의 불평등한 배분이라는 측면보다는 내면화된

66) Salleh(1993), 위의 글 116p.

역할과 가치들에 의해, 환경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여성들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실제로 환경운동의 많은 활동가나 간부들은 여성(혹은 주부)들이다. 때문에 단순히 적극적인 참여만으로 보았을 때는 여성이 환경문제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여성과 자연을 연결짓거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보다 대응방식의 적극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환경운동 사례들을 통해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현실적 가능성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전략이 내포한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성차별적 가족구성과 역할의 재생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환경피해의 불평등한 배분과 성차별이 연관되는 방식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성역할도 환경피해에 대한 적극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은 순차적이지는 않지만 몇가지 단계들을 구분함으로써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네가지 단계로 여성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전적으로 임의적이지만 이는 여성의 환경운동에 합속된 정치적 함의와 에코페미니즘 이론의 가능성을 정리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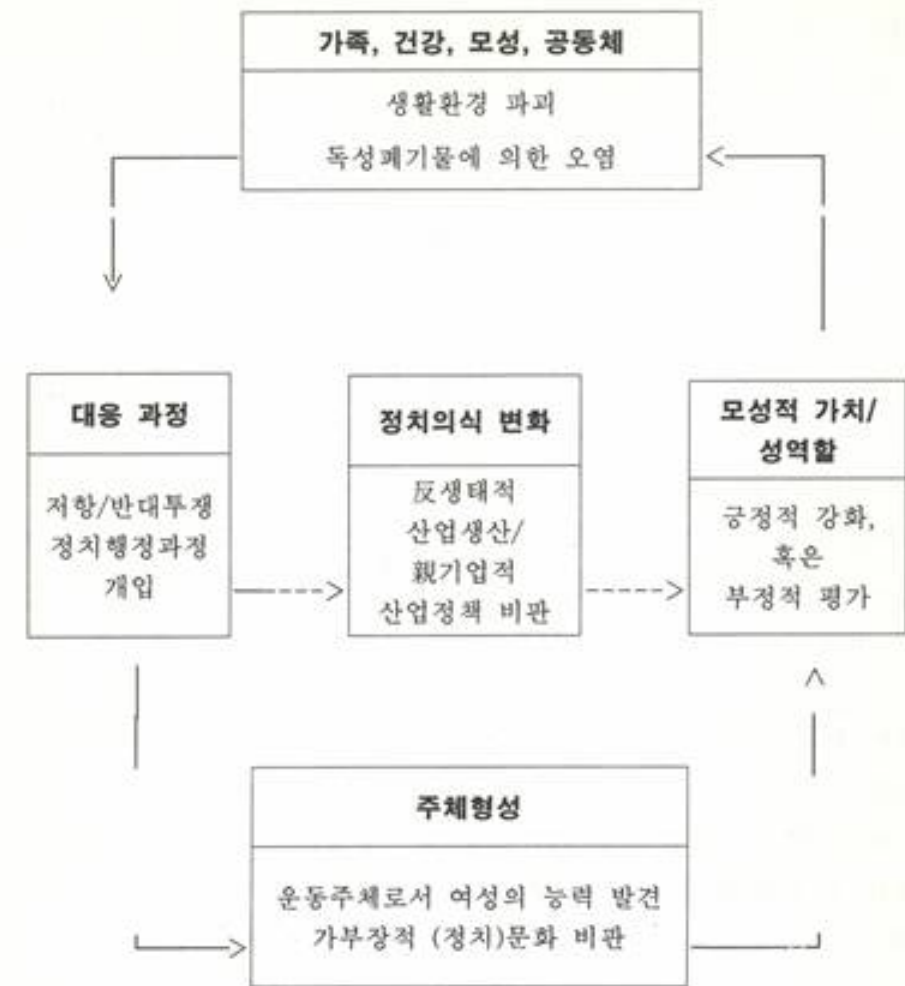
첫째로 여성은 가족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과 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한 적극적 저항의 동기는 여성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독특한 물적관계나 거기에서 비롯된 가치들에서 출발한 것이다.

둘째 여성이 지역사회 정치현안(환경문제)에 개입하면서 정치적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던 여성의 활동은 공적 영역의 활동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환경과괴적 생산이나, 산업정책을 비판하고 그러한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논리를 비판하게 되었다.

셋째로 여성은 스스로가 수행해온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지적 능력에 대하여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넷째 여성은 가부장제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여성의 활동과 경험에서 긍정성을 발견하고, 여성적 가치와 원리를 통해 문제를 극복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와 발전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여

성해방론적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째와 셋째 과정은 서로 명확히 분리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확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세부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그림2로 나타내 보았다. 직선은 운동의 진행경과에 따른 상황이고 점선은 항상적이지 않은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그림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 ▶ 운동의 동원, 진행 경로 _____
- ▶ 사례에 따른 선택적 경로 _____

그림 2. 환경 운동을 통한 여성의 주체형성 과정

비록 환경/ 反유해폐기물 운동들이 직접적으로 여성해방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실천에 동참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경험을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은 환경정치가 여성에게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여성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참여

일반적으로 남성 가장이 가족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책임지도록 위치 지워질 경우 여성은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서구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혹은 ecojustice) 운동⁶⁷⁾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주된 참여동기는 그들의 가족내 역할과 가치에서 비롯된다.

풀뿌리 환경운동은 1960년대 말의 반전 평화운동과 시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민권적 의미에서의 환경적 평등을 위해 투쟁했다. 이 운동은 기존의 사회 정의와 풀뿌리 조직을 이용해 국가와 사적 기업에 대항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R. Bullard & B. Wright, 1989) 유해폐기물 반대운동은 1980년대 미국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풀뿌리 환경운동의 핵심을 이룬다.

67)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운동은 인종과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나온 말이다. 산업발전의 부산물인 독성 폐기물은 소수인종들의 거주지나 하층계급의 주거 공간에 아무렇게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고 많은 피해를 불러왔다. 1987년 CRJUC(그리스도 연합교회의 인종 정의 위원회)에서는 '독성폐기물과 인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위험 폐기물을 사회적 약자 층에 배치하는 실태에 대해 고발했다. 예로 2백만 톤 이상의 우라늄 찌꺼기들이 해마다 원주민들의 보호 구역에 버려지고 있고 나바호의 인디언 세대들은 평균보다 7배나 높은 내장기관의 암 발병을 보이며 반수가 흑인 어린이인 70만 도시빈민 지역 어린이들은 납중독으로 인하여 학습장애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Hamilton, Cynthia:1990), 윗 글 215p에서 인용.

독성폐기물들은 블루칼라와 유색인종들의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블루칼라 여성들이 이에 대한 반대운동⁶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건강에 대해 책임을 저왔으므로 그들은 독성폐기물과 자녀의 건강을 연결짓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의해 주도된 유해폐기물에 관한 지역운동과 여성건강(모성건강)운동을 통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여성의 건강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독성폐기물 정책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독성폐기물 근처에 사는지조차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스트링펠로우에서는 80만 갤런의 독성폐기물이 이 지역 국민학교 바로 뒤편으로 흘러들어와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독성물질로 오염된 진흙탕에서 놀았으나 정부관리들은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킬 것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겼다.⁶⁹⁾

문제의 발견후 주민들이 한 첫 행동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독성폐기물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운동이었던 러브 캐널(Love Canal)의 사례에서 보면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독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하루 세 가지의 흡연에 비할 정도로 밖에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뉴저지의 사우스 브룬스윅(South Brunswick)의 지방공무원은 오염과 함께 사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⁷⁰⁾. 위험스런 상황에 대한 정부에 무관심에 직면해 많은 여성들은 행동주의자가 되어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한 예로 러브 캐널에서 여성들은 (유해시설) 건설지를 파괴하거나 위정자의 초상을 불지르기도 했고 유모차로 봉쇄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기도 했다⁷¹⁾.

68) 미국에서의 유해폐기물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본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과정에 대한 위의 분석은 대부분 다음의 글에 의지하였다. Celene Krauss, "Blue-collar women and toxic waste protest: the process of politicization", in *Toxic Struggles*, Richard Hofrichter eds. 1993.

69) Krauss, 위글, p.111.

70) 위글, p.111.

71) 위글, p.111.

한편으로 생태적 위협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 대응은 제3세계에서 여성들의 투쟁에서도 볼 수 있다. '제3 세계의 많은 여성들에게 토지, 수질, 대기 그리고 에너지의 보존으로 인한 이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노력의 일부였다.'⁷²⁾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땅위에서의 조그만 생물을 살리는 노력에서 시작하여 지구의 보호자가 되었다.

인도에서 있었던 가난한 여성들의 토지개혁과 산림보호를 위한 운동—Chipko⁷³⁾라 불림—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에서는 수년동안 간디의 비폭력 운동으로부터 나온, 가난한 여성들이 토지개혁과 산림보호를 위한 캠페인—Chipko 운동이 전개되었다⁷⁴⁾. 칩코 운동은 3백년 전 암리타 데비라 불리는 여성이 이끈 3백명의 비쉬노이 공동체 사람들이 khejri라는 신성한 나무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던 사건으로부터 역사를 갖는다.

최근의 칩코운동은 대중적으로 여성의 산림보호 운동으로 언급되어 왔다⁷⁵⁾. 가칠 히말라야(Garhwal Himalaya)에서 벌어진 이 운동은 많은 사건들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유사한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숲의 상업적 사용이 가져올 결과는 여성과 그들의 가족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인도 여성들은 벌목을 위한 불도우저가 숲으로 다가왔을 때, 나무를 몸으로 에워쌌다. 여성들 한사람 한사람은 자신이 보호하는 나무를 하나씩 말한다. 사람들이 나무를 베러 왔을 때 칩코운동의 여성들은 "우선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고는 하나의 나무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하자. 남성들이 그들의 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나무를 꺾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인 비폭력투쟁을 했다. 그리고

72) Ynrstra King(1993), "Feminism and Ecology", in *Toxic Struggles*.

73) 인도에서의 생계수단으로서 숲의 의미와 그들의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저항사례를 보려면, Smitu Kothari and Pramod Parajuli(1993), "No Nature Without Social Justice : A Plea For Cultural and Ecological Plualism in India", Wolfgang Sach ed, *Global Ecology*.

74) 이 운동의 비폭력 투쟁은 간디의 노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칩코운동을 주도했던 여성의 한 사람인 미라 벤(Mira Behn)은 간디의 가까운 제자 중 한사람으로 1940년대에 히말라야 지역에 옮겨오면서 이 지역의 홍수나 숲의 황폐화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Shiva, Vandana (1989),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 Zed Book), p.68.

75) Shiva, 위의 책, p.67.

그들의 전술은 인도의 다른 부문에까지 확산되었다. 그 캠페인은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고, 여성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남성들도 동참했다. 그러나 이것은 감성적인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삶이 숲의 생존에 달린 사람들의 투쟁이었다.

인도인들에게 숲은 전통적으로 단지 목재를 얻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의지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먹을 것과 사료, 연료의 수집을 맡아왔기 때문에 양육자로서 여성은 숲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hiva, 1989). 따라서 여성이 숲의 다양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노동과 역할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인도 여성들의 저항은 서구의 독성 물질에 대한 여성주민들의 항의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존과 건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더불어 숲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여되었던 신성한 가치가 생태파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있었던 '우장산 살리기 운동'은 강서양천지역의 산소공급원이자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하는 우장산에 구청이 주민들과의 협의없이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전개된 운동이다. 이 운동에서 주부들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산에서 천막을 치고, 포크레인 앞에서 나무를 에워싸고 지켜냈던 적극적인 싸움을 벌여 결국 체육관 건립을 저지하는데 공헌하였다.

'우장산 살리기'운동의 경우, 비록 긴박한 생존 상의 이유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자연과 접하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 산에 대한 가치는 주부들에게 매우 중요했으며, 실제로 이 운동은 '나무를 에워싸는' 침묵운동의 형태와 비슷하게 여성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한 주부는 다음과 같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무때고 아이들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을 없애고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휴식처를 없애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자산을 빼앗는 엄청난 일인 것이다. 또한 우장산은 동네사람들만의 산이 아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강서 양천의 신선한 산소공급원이자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인 곳이다..."⁷⁶⁾

76) 김영애(1995), "우장산 살리기", 여성과 환경 총서 2, pp.55-56.

또 다른 사례인 95년 신도림의 조흥화학 유독가스 유출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당시 가정에 있었던 주부와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주부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구토하고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크게 분노하고 이후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갔다⁷⁷⁾.

이처럼 성별분업 구조상 가족의 식생활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환경 오염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며,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서구의 경우와, 제 3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의 비중이나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생활환경의 파괴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방식이 남성과 다른 조건 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의 능력에 대한 재평가와 정치의식의 변화

운동의 참여를 통해 여성이 가진 능력에 대해 발견하면서 여성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왔던 여성들은 환경운동 참여를 통해 정치적 경험을 갖게된다. 이러한 경험은 정치에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어온 여성들의 감성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거나 여성들의 독특한 정치적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환경 파괴를 잘못된 개발방식이나 정책적 결함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여성들은 비판적 사회 의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이나 여성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식들이 지닌 생태친화적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의 경우 풀뿌리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주부들은 정치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 여성들은 가족과 모성애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그들의 행동을 구성할 수 있었으

77) 강수영 외,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여성과 환경'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민우회, pp.71-72.

며 흔히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감성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히스테리컬한 가정주부”, “감정적 여성들”, “어머니” 등의 말은 이제, 가족과 건강,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공공영역의 한계를 드러내는 비판과 권한의 언어가 되었다.⁷⁸⁾ 가족의 사적 영역은 공공영역에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투쟁의 과정에서 불루칼라 여성들은 성과 계급이 전통적인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형성하는 방식과, 정부가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옹호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모순되는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폐기물에 반대한 투쟁은 여성들의 의식과 정치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렛대가 되었다.⁷⁹⁾

그리고 환경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환경 사안에 내포된 정치적 함의와 관료주의의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야생동물보호나 산성비, 오존층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국적 환경운동단체의 실천과 달리 인간의 건강을 우선적 관심으로 하는 풀뿌리 환경운동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을 수반했다.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과정은 정치적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발생한 피해 사안에 대해 주민들로서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문제의 제기와 해결에서 ‘참여’의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행정적 민주주의 가치마저도 관료적 행정이나 기업의 이해에 따라 허구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풀뿌리 환경운동의 참여자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참여’와 민주주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과 개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정치의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단지 기술적 문제로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치적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N Freudenberg & C Steinsapir, 1992).

여성들이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여성적 능력을 발견하고 가부장적 문화나 정치에 비판적 의식을 갖게되는 다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78) Krauss, 윗글, p113.

79) Krauss, 윗글 pp.114-115.

LA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계획되었을 때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에 대해 '남성들은 여성들의 관심사를 "비이성적이고 확립되어있으며 분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비웃으며 거부하자 여성들은 서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남성 전문가들의 경멸은 전문 직업인이나 실업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여성들이 비이성적이고 비타협적이라고 비웃었던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여성들 속에 불타게 되었다.'

"소각장을 취소한 남성들의 반응이 가부장제의 비판없이 운동을 시작한 착한 여성들, 전문인이나 비전문인이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경험이 되었다. 그들은 실천 속에서 비판을 전개했다. 평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인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즉, 노동자 계층 여성들의 관심이 단순히 기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⁸⁰⁾

여성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백인 중산층 남성들과의 갈등 외에도 가족과 아이들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강력한 이해에 좌우되는 정부 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가족의 보호자로서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역할은 블루칼라 여성들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반면, 환경문제에서 성차별의 문제는 그 발생과정에서가 아니라, 문제에 대응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첨예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로서의 동기들은 여성을 역사의 대리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자각은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적 정신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삼스럽게 체현하는 것일 뿐이다(Krauss, 1993). 따라서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의 자각은 그들 생활의 조건과 활동에 기반한 실천들을 통해 발전될 수 있었다.

침코와 같은 환경운동은 여성의 생태학적 통찰과 정치적 도덕적 힘에 의해 추동되어 왔던 점에서 역사적 지표가 되어왔다. 숲의 보호를 통한 여성의 생존투쟁은 여성의 생태학적 지식에 따라 생산성, 진보, 발전 등의 기본적 범주들의 의미를 재정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80) Hamilton, Cynthia 엮음.

쉬바는 여성의 생태학적 투쟁을 통해 경제적 지적 가치와 관련된 사고에 두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첫째는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과 지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유하는 자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는 누가 부와 경제적 가치의 생산자이고, 부와 경제적 가치의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Shiva, 1989).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숲은 생태적 균형을 잃고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게한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숲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효과들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숲에 대한 지식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핵심적이다. 여성의 이러한 지적인 지위는 그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준으로는 눈에 들어 오지 않는 여성의 노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첫째 일이 종류와 양이 방대하며, 둘째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세째 다중적 업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여성은 생물다양성의 관리인이었다.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물다양성을 생산, 재생산하고 소비, 보존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발전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무시 속에서 그들의 역할은 非-노동, 非-지식으로 간주되었다.⁸¹⁾

개발과정에서 무시된 여성의 지적 유산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은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매우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숲을 지켜내려는 투쟁을 통하여 인도의 여성들은 자급 자족적이고, 중앙정부로부터 탈중심화되어 있으며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원리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환경운동은 대부분 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강수영 외, 1996). '우장산 살리기'(1994, 서울)운동에 참여해 직접 문제에 부딪치는 과정에서 주부들은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모두들 전경과 몸싸움하고 전경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81)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p166-168.

TV에서 데모장면을 보면서 전경보다는 학생들을 옥쇄왔던 일들이, 우리들의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관과 구청이 이렇게까지 썩었고 한심할 줄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구청장 말한마디로 강서구청이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공권력까지 투입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문민정부 아래 행해질 수 있는 작태라고 믿고 싶지 않다"⁸²⁾

공권력이나 관청에 대한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던 주부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통해 충돌하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갈등과정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 나서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지역주부들은, '우장산 살리기'운동에서처럼 운동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구청이라는 행정기관과 직접적인 싸움을 전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얻게 되었으며, 지역주부들의 단결을 통해서 공권력에 대항하여 우장산을 지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운동의 주체로서 자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명을 통해 어머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민자당 지구당 대회에까지 가게되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물론 서명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따끔한 어머님의 항의에 당원들은 찢찢매더라는 한 어머님의 무용담도 있었다..."⁸³⁾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정책의 문제점, 비민주적 행정관행들을 몸서 겪으면서 지역주민의 주인의식이 성장되었고 지방자치의 결정권자라는 의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⁸⁴⁾

82) 김영애, "우장산 살리기", '여성과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네트워크 편, [여성과 환경] 총서2, 1995.

83) 김영애, 위의 글, 61-62p

84) 김현숙, 김혜정 외(1995), "여성환경운동 지역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 여성과 환경 총서2, 99p.

“우장산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처음엔 밥마하고 내 식구만 생각하는 우리 주부들이 무얼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주부들의 힘이 보통 이상임을 확실히 느끼며 무얼할까 고민하게 된다. 다가올 6.27 지자체 선거의 의의와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낀다.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주부로서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지역문제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지역에 올바른 일꾼 하나를 뽑아 다시는 우장산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부들이 감시하고 지켜 봐야 겠다.”⁸⁵⁾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환경운동에서 보여준 여성의 활동은, 지역환경운동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슈가 해결된 후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여성의 주체형성과 성역할

풀뿌리 환경운동의 조직은 공동체에 기반한 집단, 지역 혹은 주 차원의 연합체, 전국적 조직 등의 세가지 수준에서 형성되었는데, 이중 지역 공동체 조직은 운동의 토대를 구성했다. 소규모 집단들을 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공동체 내에 발생한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의식의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그들 가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경우에는 매우 과격하고 비합법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운동에 대한 참여는 공동체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행동의 기준을 바꿔놓았으며, 종종 참여자의 삶에 지배적인 열정으로 자리하게 되기도 한다(R. Bullard & B. Wright, 1989).

이러한 과정은 풀뿌리 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험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여성은 이 운동에 참여면에서나 지도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기존에도 조직을 구성하는데 여성이 참여했던 적은 있지만 조직 경험이 전혀없는 주부나 어머니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것은 이 운동의 특징적 성격이

85) 김영애(1995), 위 글, 62-63p.

다. 여성들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은 정치적 저항이 형성되도록 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이러한 저항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정부적 의식으로 정치화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치를 가로막는 가부장적 문화의 장애에 대한 각성- 페미니스트적 각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⁸⁶⁾

그들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권력의 세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적 결정의 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백인이고 남성이며 중산층인 정책결정가들과 갈등하게 되었다. 주민지도자들의 70-80%는 여성이었지만 그들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에서 여성지도자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지도자들은 공동체에서 전통적인 여성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사이에 갈등을 발견한다. 여성적 성격이 정치적 역할에 맞지 않으며 이성적이지 못한 히스테릭한 반응들 뿐이라는 공동체의 강제적 평가가 그들로 하여금 더욱 그러한 역할 갈등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여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기존의 가치들이 강화되는 과정이 숨겨져 있다. 분명 여성들의 실천력이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에도 운동을 통해 결과적으로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이 설득력있게 재강조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의 두가지 언설들은 이러한 충돌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 남성과 여성 모두의 복지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달려있다. 여성들은 위기가 강제하는 부당한 몫의 짐을 감당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도전의 깊이와 절박함을 좀더 철저히 인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현실의 삶을 담당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이익의 관리자로서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현재 요구되는 변화들을 가져오는데 있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중요하다...”⁸⁷⁾

86) NANCER(LA동력회복기구로 불리는 대규모 소각장)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주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투쟁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맞물려 있었다.....정치, 경제적 문제들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 전에는 나는 오직 건강만 염려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정치와 의사결정 등 많은 일들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Hamilton, Cynthia(1990), 위트 글, p.221.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이 주부들인 양, 그 나머지의 사회구성원들은 주부들의 육체적 시간적 노력만이 환경오염의 해결방법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⁸⁸⁾

위의 두가지 입장들을 통해 바라보면 여성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다. 여성의 역할이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주체적 활동의 요구와, 그러한 요구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 번째 언설에서 여성이 감당해왔던 부당한 몫의 짐은 그것이 현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특별한 책임으로, 지도력의 발휘로 지속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언설은 여성의 능동적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 부담 전가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도하지 않게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의 강조는 책임부담의 전가로 전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넘어서는 운동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되면서 전통적 가족의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여성활동가 사이에서의 매우 높은 이혼율과 아내학대 사례들은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에 기반한 운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해치는 결과를 보여준다.⁸⁹⁾

과천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비롯한 지역환경문제에 열심히 참여했던 한 주부는 과중한 일과 주부로서의 역할 갈등을 느끼고 지쳐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87) Noeleen Heyzer(1995), “21세기를 위한 여성개발 의제”, 여성과 환경 총서2, 200p.

88) 황은주, “여성환경운동의 지역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 중, 위의 책, 97p.

89) 가족들이 여성의 적극적 가담과 활동에 인내할 수 있는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가가호호에서 개최된 회의는 결국 아이들과 남편들 모두를 포함시켰다. 모두가 참여하고 경청했다. 여성들이 공청회와 시위대에서 발언할 때 관계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남편들은 아이들의 운송을 맡고, 간판을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공개토론회 등에서 지원해 주었다” (Hamilton, 1990) 이러한 차이가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계층적 소속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인종에 따라 다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남편이 여성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일 때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조건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인내심과 이해력이 있거나 해야 가능할 것이다.

“...뒤틀전으로 밀려났다는 위기감을 느낀 남편과 아이들은 마음으로 용원을 하지만 나의 빈자리는 싫다면서 만만찮은 저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2세를 위해 ... 시작한 환경운동이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조금도 즐기 않는 집안일과 점점 늘어나는 바깥일을 함께 하면서 가족들의 원성까지 감당하기가 무척 힘들었다.”⁹⁰⁾

가족들을 위해 시작한 환경운동이었기에 주부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보람도 느끼게 되었지만 점차 기존에 수행해온 활동과 새로운 활동들이 가족들간에 조정되지 못한 채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기존에 가족들을 위해 했던 가사노동과 배려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 확장된 가족적 가치는 그 출발점이 된 한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해가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이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서는 활동과 인식이,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가치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큼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여성의 역할은 배우자에게도 공유되거나 관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고정화시킬 위험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심지어 환경보호에 앞장선 주부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남자들은 쓰레기 안버려. 여자들이 다 버리는 거라구. 그러니 여자들만 잘 들고 하면 되지.”..... ‘사실 여자들이 환경오염 다 시킨 겁니다. 샴푸로 머리 감죠, 합성세제로 빨래하죠, 그래서 수질 오염시키고, 음식 쓰레기 함부로 버려서 쓰레기 문제 생기구요. 우리나라 여자들 각성해야 합니다’⁹¹⁾

여기에는 모든 환경오염은 여성들의 활동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주부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위와 같은 인식은 환경문제의 출발점을 소비과정에 맞추므로써 여성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유일한 주체인 것처럼

90) 권귀원, “환경사랑 실천, 말처럼 쉬운가요?: 환경운동가의 생활일기”, <여성과 사회> 제7호, 창작과 비평사 1996, 96p.

91) 권귀원, 앞 글, p89.

가장한다. 생태계의 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력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성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확인되고, 여성은 다시 한 번 그들의 자리와 임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역할을 좀 더 신중히 수행할 것을 반성하면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항의 과정을 통해 이웃 의식을 발전시키고, 새롭고 의미있는 친교망을 구축하게 된다는 점 역시 지역환경운동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다. 하지만 이것의 이면에는 가족생활의 파괴와 이혼, 그리고 기존의 친구나 이웃 관계로부터 터의 고립 등이 활동가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이 보고 되기도 한다⁹²⁾.

이 결과들은 여성들이 그들의 아이들과 공동체, 그리고 가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운동의 출발에서 참여의 자원이 되었던 것들-여성의 성역할-을 뛰어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방향은 후자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중심적 가치들을 정치적 과정 속에서 각성하고 저항함으로써 여성적인 것으로 배제되던 특수성을 긍정적 능력으로 확장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사적이고 감성적인 정치가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은 남성중심의 보편주의와 여성성의 강조간에 대화를 폐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예컨대 '여성들은 그래서 안돼'라는 주장을 확인시키고 여성들의 정치를 단절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92) Freudenberg, Nicholas & Carol Steinsapir(1992), "Not in Our Backyard: The 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 in Dunlap, Riley E & Angela G Mertig ed, *American Environmentalism: The US Environmental Movement, 1970-1990*, (Taylor & Francis: Philadelphia).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합의

환경보호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책임은 여성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격으로부터, 혹은 여성적 원리로 간주되는 보호와 양육의 성격으로부터 강조되어 왔다. 80년대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여성, 특히 주부들의 역할이 사회적으로나 지역환경운동의 사례에서나 두드러지게 되었다. 여성과 자연의 연관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그 밀접한 연관의 배경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기 훨씬 전에 현실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셈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많은 여성들이 환경파괴에 대항해 자연스럽게 운동의 주체로 나섰던 경험을 배경으로 최근에 형성되었다. 70년대 이후 활발해진 이러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세계의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여러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서로 일관된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경향은 기존의 과학이나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특성으로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에 영향을 준 생태학과 페미니즘의 전통은 바로 이러한 비판적 입장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들어 맑스주의 생태학이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경우처럼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주목하는 경향은, 여성 노동의 사회적이고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생태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론체계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구성하든 일관된 이론적 주장과 실천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대체로 환경파괴에 대항하는 여성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오래전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여성과 자연의 연관을 억압의 기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사실은 에코페미니즘 이론 내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인다. 여성이 과연 친환경적이며 그러한 실천이 여성이나 자연에 대한 착취를 없앨 수 있는 실

천인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를 해결할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여성과 자연의 연관이 갖는 억압적 측면과 실천적 긍정성이라는 긴장에 주목하여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과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직접적으로 여성과 자연의 연관이 억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연관을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긴장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유물론적 에코페미니즘이나 심리·생물학적 에코페미니즘의 구분은 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주요한 이론적 의의를 크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구조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구조로 확장시킴으로써 생태위기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생태 위기에 대한 설명은 기술중심적이고 개량적인 환경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급진적 생태주의와 유사하다. 급진적 생태주의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전망하에 인간의 소비양식과 반생태적 기술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와 생산체계의 전환을 요구한다. 에코페미니즘의 생태위기에 대한 분석 역시 급진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 많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환경파괴의 원인에 대해 가부장적 가치체계와 자본주의적 발전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위기의 조절을 꾀하는 환경개량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급진적 생태주의의 영향은 근본생태론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며 생태주의의 이러한 경향이 급진적 페미니즘과 결합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생태학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성이다. 생태학적 사고는 에코페미니즘이 모든 지배구조를 연관지어 사고하도록 하는 데 큰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연관시킴으로써 여성억압과 생태위기가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지배에 대한 설명은 자연과 여성의 연관을 분석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한편으로 페미니즘은 생태이론에 대해 억압적인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문제의 다중성을 이해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Plumwood, 1994). 최근의 몇십년간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억압의 다중적 맥락하에

서 여성의 억압에 대한 이론틀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이론틀은 정교하게 발전된 해방론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지배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워렌(Warren, Karen)은 보다 완전한 페미니즘은 전통적 개념을 확장해 모든 억압 체계간의 명백한 상호연관을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억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태위기에 직면해 자연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이원론 비판은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월적 이성과, 모든 정신의 철저한 결여로서 '순수물질'이라는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물질(자연)의 결합되기 위한-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다(Radford: 1993).

에코페미니즘의 또 다른 이론적 중요성은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발견하고 적극적 실천의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친여성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으로서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여성해방 정치학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를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두가지 흐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친환경성을 공통적으로 옹호하는데 크게 보아 이러한 여성적인 특수성을 사회 역사적 요인으로부터 이해하는 경향과 심리 생물학적 경험으로부터 설명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제로 여러 에코페미니스트들에게서 인정되는 바는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이분법적 인식론을 비판하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분리불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강조점에 따라 구분된 에코페미니즘의 두가지 경향은 분명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비판에 가장 충실할 때 여성을 자연과 가깝게 하는 성질은 사회적인 동시에 생물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재생산되고 변형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여성성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이해는 여성의 구체적 노동을 통해 생태학적 원리의 우월성과 여성의 실천력을 발견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성을 이렇게 보았을 때 환경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도 스스로의 역사적 정체성에 기반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모순적 주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양육과 먹거리, 건강을 책임져온 역할에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출산의 주체로서의 경험에서 여성은 생태학적 원리를 터득하거나 적어도 보다 긴밀한 감수성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에 기반해 여성들을 사회운동의 일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 운동의 참여과정에서 급격하게 생성하고 변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운동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그러한 정체성이 비롯된 기반에 의해 다시금 속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주부인데, 주부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사회적 의미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환경운동의 주체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은, 사실은 매우 소중하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왔던 양육자로서-노동력 재생산자로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과도하게 부과되는 책임은, 운동의 참여과정에서 여성의 긍정적 자기 인식과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

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가정과 공동체 안팎의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 이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몇몇 사례들은 환경운동이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양가적인 계기임을 보여준다. 여성의 환경에 대한 적극적 보호노력은 환경에 대한, 가족의 건강에 대한 부당하게 전가된 책임과 공존하고 있다. 만약 여성들이 운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획득된 정체성의 갈등적 기반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성들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가치와 능력을 포기하고 정치사회적 영역으로부터 고립된 가정에서의 역할로 후퇴하거나, 여성들에 국한된 활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정치적 비전은 후자를 지향하고 있다. 여성에게 국한된 자연과의 긴밀한 교감과 감수성은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확장되어야 할 태도이며 여성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친생태적 원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수용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환경운동에서 여성에게 유독 강조되는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책임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모든 남성들과 나누어 져야한다. 더구

나 오늘날 환경을 파괴시킨 주된 원인이 반생태적 산업생산의 결과라면 남성들의 책임은 더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공감과 분담은 배타적으로 규정지어지는 남녀의 역할과 가치들을 가정과 사회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성을 자연과 연관짓는 여성적 원리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입지는 이제 '여성적 원리'의 사회 역사적 근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심화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할 경우, 여성적 경험과 특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코페미니즘은 그 실천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첫째로, 여성적 원리나 경험의 강조는 환원주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경험이나 정체성이 단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내에서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차이들-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심리적인 차이들과 경험의 불일치를 존중해야 한다면 에코페미니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주장은 동시에 위험한 가정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여성적 원리를 추상화시킴으로써 다양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King: 1990)

둘째로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성질들은 그 안에 남성으로부터의 분리된 여성의 실재라는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억압받는 여성의 정체성은 억압하는 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Davison: 1994).

셋째로 성역할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성역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지배와 종속이 없는 성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여성이 자연에 대한 특수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여성의 직관이나 영성을 평가하는 것은 여성이 가진 인식론적 특권이 생물적/사회적 결과 중 어느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애매함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이것이 피억압의 지위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적인 주장일 것이다. 끝으로 여성적 원리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가부장제 이전의 사회를 특징짓는 원리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로 얘기되는 고대 사회도 사실은 오늘날 폄하되어 여성적인 것으로 연관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여성적인 것'이란 없었을 수도 있다(Davison: 1994).

그리고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만 그 해결책이 이제껏 폄하된 이분법의 한 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로운 이분법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연과 더 가깝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부정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 사고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Warren: 1991). 끊임없이 이원론적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에 재침투하는 전통적 사고의 영향은 아직까지 에코페미니즘에 이론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시도는 생태위기와 여성의 문제를 통해 이론과 실천, 연구의 주체와 객체, 주체의 형성이나 재형성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에코페미니즘은 타자화된 여성의 위치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타자로 만드는 과정을 비판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전통은 여성들의 복수적 정체성과 연대의 문제를 보다 심도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에코페미니즘 이론은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수용하면서 풍부하게 발전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실천적 함의

이 논문에서는 여성이 중심이 된 환경운동- '여성'환경운동-보다는 지역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환경'운동이 여성의 정치화에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여성'환경운동의 제한적 의미와 성과 역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환경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운동은 주로 세가지이다. 그 하나는 쓰레기 처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소비자로서의 역할 등을 통해 강조되어온 주부의 책임에 기반해 재생산 영역에 한정된 생활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운동으로, 언론 등을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운동이다. 여성의 책임성을 여성 스스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로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여성운동의 실천 활동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성환경활동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생활과제의 실천을 통해 참여를 끌어내고자 하지만, 여성문제와 환경문제간 연관의 인식을 목표로 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포함된다.

세번째로 생태위기에 대한 자각이나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환경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환경운동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 여성의 중심이 되어 하는 운동을 여성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여성으로서의 문제의식으로서 운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의 자원-역할과 시간, 정보 등-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여성'환경운동으로 곧바로 규정짓기는 어렵다⁹³⁾.

이글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운동을 '여성'환경운동으로 세 번째의 경우를 여성'환경'운동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 우선 '여성'환경운동을 '여성'으로서의 책임과 실천을 강조하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실천들이라 정의한다면 이러한 실천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운동, 일회용품이나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전국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이 있는데, 주부로서의 역할과 소비양식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실천들은 상품 순환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소비와 폐기과정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는 생산과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과 재구조화에 대한 관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운동들은 여성적 속성을 자연적 속성과 동일화함으로써 여성들을 환경운동에 꾸준히 동원해낼 수는 있지만 본질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93) 강수영, 김선미, 안지영(1996)의 글에서는 이를 1) 기존 관변 여성단체와 지역 중심의 소모임 활동, 2) 환경과제를 채택한 여성운동단체의 활동, 3) 지역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1)과 2)의 활동은 운동의 내적 목표나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일단 환경운동의 주체로서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다는 점과, 규명되지 않은 '여성성'에 운동의 동원을 의지하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구체적 실천 내용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성'환경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억압에 대한 인식이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문순홍, 1993).⁹⁴⁾

여성적 속성의 보편적 원리를 가정하는 경향의 '여성적 에코페미니즘'에 기반한 실천의 또다른 문제점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직업노동의 이중부담에 또 하나의 가사노동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국주부교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같이 단체는 주부를 환경문제의 가해자로 간주하여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강수영 외: 1996). 이러한 운동들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의 거시적 맥락에 대한 진지한 비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쉽다는 점이다.

한편 8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여성해방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대중적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환경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새날 여성회', '환경을 살리는 어머니모임', '환경을 살리는 주부모임', '함께 가는 주부모임', '한국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사업부' 등이 그것이다.⁹⁵⁾ 이러한 운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주부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만나 여성환경운동의 한 흐름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일상과제를 중심으로 공적 활동의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거부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공동체를 활

94) 위 글에서 이러한 비판에 해당하는 운동에는 지역 내 위해시설 입지 반대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내 위해시설 입지반대 운동은 여성이 지역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있다는 점에서 따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 참조. 문순홍은 본질주의적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적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환경과피의 피해당사자로서 여성=자연 동식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994). 이러한 긍정성은 주로 일상생활 영역의 정치화에 기반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의 정치 주체로서의 형성에 대한 강조는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던 '일상생활'과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적, 일상적 정치를 제도정치로 확장해간다는 의미보다는,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해방적 문제의식을 갖게되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긍정하는 내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95) 강수영 외, 앞의 글, 65p

성화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역운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이 운동에서는 모성과 가사노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여성성이 여성의 친환경성을 설명할 때 강조된다. 여성운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과제는 여성대중의 참여를 끌어내는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환경파괴와 여성억압이 동일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발전시키고, 주부들이 생활영역에 국한된 실천에서 사회변혁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⁹⁶⁾

"사회의 경제 정치구조와 맞물려 있는 환경문제의 특성 상 환경문제에의 여성 참여는 결국 여성의 세력화와 지위상승을 의미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생활의 주체자로서 더욱 탄탄한 자리매김을 하게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환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의식구조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유기적이며 평등한 인간관계와 여성과 남성이 비분리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추구하려는 시도는 환경운동 및 생명운동이 민주적 과정과 개인의 실천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적 관계를 지양한다는 본래의 성격과 부합되는 점이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지역환경운동에 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운동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역할은 무비판적으로 여성의 친환경성을 가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모성적 가치와 가사노동은 매우 직접적인 운동의 동기부여로 작용하지만 이것 자체로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과 변혁운동의 주체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가사노동에 기초한 실천력은 그것의 전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과 가부장적 성별분업에 대한 비판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일상적 생활과제는 대부분 그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연결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적 소비양식의 문제점에서 출발해 사후적 실천에서 해결점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여성운

96) 강수영 외, 같은 글, 68 p.

동단체들에게 있어 여성환경운동은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운동을 대중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던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핵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운동은 세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환경운동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여성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방식의 독특함은 여성의 성역할 내지 여성성이 가지는 친환경성에 대한 가정을 실천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환경이라는 이슈에 대해 자신의 고정적 성역할을 통해서 스스로를 동원하지만, 운동과정에 내포된 문제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가부장적 사회 가치나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여성과 환경문제의 실질적 연관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폐유로 비누만들기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화의 계기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역환경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은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정합성을 따져볼 수 있는 운동 부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역 환경운동 경험이 여성에게 주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여성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정치적 의식의 변화이다. 이 변화 과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부들은 공적인 장에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한 경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에 묻혀 있는 주부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둘째, 지역환경운동은 대부분 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주부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경험을 갖게 된다.

환경운동이 여성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뿐 아니라, 지역환경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운동의 주요 동력이다.

"...처음에 조직하고 대책위를 만들어 내서 일정한 운동의 틀에 올려놓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획력이나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남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위가 오르게 되면 여성들이 그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현장에 나서서 남성들보다 더 열심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안면도나 굴업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여성들의 끈질긴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운동의 승패는 여성의 참여정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여성들이 그 다음의 운동단계에서 주체로 서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 토대는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⁹⁷⁾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들의 지역환경운동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보인다. 따라서 지역환경을 살리는 운동은 가부장적 문화를 사회의 하부단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극복해가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곧 여성운동이 시야를 지역환경운동에 내재해 있는 여성운동의 잠재적 역량에 돌려, 이러한 지역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강수영 외, 1995).

여성으로서의 정치적 자각과 무관한 동기에서 참여한 환경운동의 많은 사례들 중에는 여성의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그 밀접한 관계가 실천적으로 유용한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의 지위나 역할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생물학적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논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나, 중요한 합의점은 그러한 연관을 보여주는 현실적 과정이 강력한 여성해방적 전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환경운동에 대한 주도적 참여는 한편으로 사회운동 전략과 조직, 운동방식에 있어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정치화가 촉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참여한 운동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었던 자신의 활동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대되는 경험을 갖게 한다.

만약 여성에 대한 지배가 단지 외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이라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필연

97) 김혜정 외(1995), "여성환경운동 지역 사례발표에 대한 토론", 여성과 환경 총서 2, 94p.

적으로 주체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는, 여성이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여성해방론적 함의를 갖는다. 그리고 여성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동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상적 경험세계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형성된 비판 의식의 발전은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적 변화의 중요한 주체적 측면이다. 비판의식은 여성들로 하여금 개인적 문제와 공권력 간의 복잡하고 종종 모호한 연관을 드러내준다.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연관을 형성함으로써 여성은 실재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 내리고 그들 자신의 행위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Krauss, 1993).

이러한 점에서 지역환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험은 여성해방적 의미에서 매우 소중하다. 또한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의 연관을 밝히고, 여성과 자연의 창조성을 존중함으로써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에코페미니즘과 여성환경운동의 가능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에코페미니즘 주요 저작

- Adams, Carol J eds(1993), *Ecofeminism and The Sacred* (New York: Continuum).
- Biehl, Janet (1991), *Rethinking Ecofeminist Politics*.
- Braidotti, Rosi 外(1994), *Wome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Zed Book Ltd),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譯, 나라사랑, 1995.
- Daly, Mary(1979), *Gyn/Ecology* (Boston: Beacon Press).
-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 eds(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Griffin, Susan , *Women and Nature*.
- Hofrichter, Richard eds(1993), *Toxic Struggles*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 Mellor, Mary(1992), *Breaking The Boundaries: Toward a Feminist Green Socialism* (London: Virago).
- Merchant, Carolyn (1983),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Scientific Revolution* (London: Harper & Row).
-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 Plant, Judith, eds.(1989), *Healing the Wounds: The Promise of Ecofeminism*.
- Rae, Eleanor(1994), *Women, The Earth, The Divine* (New York: Orb Books).
- Rooda, Annabel, eds.(1991), *Women and Environment*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Ltd).
- Sachs, Wolfgang(1993), *Global Ecology: a New Arena of Political Conflict*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Shiva, Vandana (1989), *Staying Alive: Women Ecology and Development* (London: Zed Book).

_____(1994), *Close to Home: Women Reconnect Ecology, Health and Development Worldwide* (New Society Publisher).

Sontheimer, Sally, eds.(1991), *Women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Warren, Karen, eds.(1994),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Zimmerman, Michael E.(1994), *Contesting Earth's Future* (Californi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2. 외국 문헌

Abbott, Sally(1990), "The Origins of God in the Blood of Lamb",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Altwater, Elmar(1993), "Ecological and Economic Modalities of Time and Space", Martin O'Connor eds, *Is Capitalism Sustainable?* (N.Y.: The Guilfords Press).

Benton, Ted(1989), "Marxism and Natural Limits: An Ecological Critique and Reconstruction", *New Left Review*, 178: 51.

_____(1994), "Biology and Social Theory in The Environmental Debate", in Redclift, Michael & Ted Benton, eds.(1994), *Social Theory and The Global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Bowles, Gloria & Renate DuelliKlein eds(1983), *Theories of Women's Stud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Bullard, Robert D. eds(1993), *Confronting Environmental Racism: Voices from the Grassroots* (Boston: South End Press).

- Bullard, Robert D. & Beverly H. Wright(1989), "The Quest for Environmental Equity: Mobilizing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for Social Change", in Dunlap, Riley E & Angela G Mertig ed, *American Environmentalism: The US Environmental Movement, 1970-1990* (Taylor & Francis: Philadelphia).
- Christ, Carol(1990), "Rethinking Theology and Nature",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Davison, Victoria(1994) "Is Ecofeminism Feminist?" in *Ecological Feminism* Karen Warre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Devall, Bill(1992), "Deep Ecology and Radical Environmentalism".
- Dobson, Andrew(1990), *Green Political Thought* (Academic Division of Unwin & Hyman Ltd.), 『녹색정치사상』, 정용화 譯, 민음사.
- Dobson, Andrew & Paul Lucordie(1993), *The Politics of Na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isenstein, Hester(1984), *Contemporary Feminist Thought* (London Unwin Paperbacks), 『현대여성해방사상』, 한정자 譯, 이화여대 출판부, 1986.
- Eisler, Riane(1990), "The Gaia Tradition and Partnership Future: An Ecofeminist Manifesto",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Epstein, Barbara(1993), "Ecofeminism and Grass-roo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Toxic Struggles* (Richard Hofrichter eds,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 _____(1991), *Political Protest and Cultural Revolution: Nonviolent Direct Action in the 1970s and 1980s*.
- Firestone, Shulamith(1970), "The Dialectics of Sex", in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g eds(1978), *Feminist Framework- 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신인령 譯, 풀빛, 1983.
- Freudenberg, Nicholas & Carol Steinsapir(1992), "Not in Our Backyard: The Grassroots Environmental Movement", in Dunlap, Riley E & Angela G. Mertig, ed, *American Environmentalism: The US Environmental Movement, 1970-1990* (Taylor & Francis: Philadelphia).
- Gorz, A(1994), *Capitalism, Socialism, Ecol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Griffin, Susan(1990), "Curves Along the Roads",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Gruen, Lori(1994), "Toward An Ecofeminist Moral Epistemology" in Warren, Karen eds.(1994), *Ecological Femin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milton, Cynthia(1990), "Women, Home, and Community: The Struggle in an Urban Environment",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Hayward, Tim (1994), *Ecological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Jackson, Cecile(1994), "Gender Analysis and The Environmentalism", in Redclift, Michael & Ted Benton, eds.(1994), *Social Theory and The Global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Jagger, Alison(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Rowman & Allenheld), 『여성해방이론과 인간본성』, 이론과 실천.
-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g eds(1978), *Feminist Framework-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 Jungk, Robert(1977), *Der Atom-Staat*, 『원자력 제국』, 이필렬 譯, 뚝님, 1991.

- Keller, Mara Lynn(1990), "The Eleusinian Mysteries: Religion of Demeter and Persephone",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Kheel, Marti(1990), "Ecofeminism and Deep Ecology: Reflection on Identity and Difference",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King, Ynestra(1993), "Feminism and Ecology" in *Toxic Struggles*, Richard Hofrichter eds,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1993.
- _____(1990), "Healing the Wounds: Feminism, Ecology, and the Nature/Culture Dualism",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Kothari, Smitu & Pramod Parajuli, "No Nature Without Social Justice : A Plea For Cultural and Ecological Plualism in India", Wolfgang Sachs eds, *Global Ecology*.
- Krauss, Celene(1993), "Blue Collar Women and Toxic Waste Protest: The Process of Politicisation" in *Toxic Struggles*, Richard Hofrichter eds,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1993.
- Lovelock, James(1978, 1987),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가이아』, 홍욱희 譯, 범양사, 1990.
- Maria Mjies(1993), "Liberating The Consumer",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s).
- _____(1996), "전지구적 생태여성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여성과 사회> 제 7호.
- Mellor, Mary(1993), "Building A New Vision: Feminist Green Socialism", in *Toxic Struggles*, Richard Hofrichter eds.,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 Merchant, Carolyn(1990), "Ecofeminism and Feminist Theory",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Mitchell, Juliet(1973), "Women's Estate" in Jagger, Alison & Paula Rothenbeg, eds(1978), *Feminist Framework- Alternative Theoretical Accounts of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Me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 Nelson, Lin(1990), "The Place of Women in Polluted Places",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 eds(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O'Conner, J(1988), "Capitalism, Nature, Socialism", CNS(1), 이강원 역,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 이론적 서설』, <공간과 사회> 3호, 1993.
- (1991), "국제적 상호의존성과 생태학적 사회주의", 루진스키外, 『전환기 맑스주의』, 공동체, 1991.
- O'Neill, John (1993), *Ecology, Policy an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Ortner, Sherry(1973), "Is Female to Male as Nature to Culture?", in Rosaldo, Michelle Zimbalist & L. Lamphere ed,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 Press 1974.
- Plant, Judith(1994), "Searching for a Common Ground: Ecofeminism and Bioregionalism",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p 155.
- Plumwood, Val(1994), "The Ecopolitics Debate and The Politics of Nature" in *Ecological Feminism* (Karen Warre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Radford, Rosemary Ruther (1993), "Ecofeminism: Symbolic and Social Connections of the Oppression of Women and the Domination of Nature.", in Carol J. Adams(1993) eds, *Ecofeminism and the Sacred* (New York: Countium).

- Reiner Gruntmann(1991), *Marxism and Ec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맑스주의와 생태학』, 박만준·박준건 옮김, 동녘, 1994.
- Russel, Julia Scofield(1990), "The Evolution of Ecofeminist",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Shiva, Vandana(1993), "Development as a new Project of Western
Patriarchy", Mies, Maria & Vandana Shiva(1993), *Ecofeminism* (London
& New Jersey: Zed Books).
- Spivak, Gayatri Chakravorty(1988),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pretnak, Charlene & Pritjof Capra(1986), *Green Politics*, 『녹색정치』, 강석찬
譯, 정신세계사, 1990.
- Spretnak, Charlene(1990), "Ecofeminism: Our Roots, Our Flowering",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Starhawk(1990), "Power Authority, and Mystery: Ecofeminism and
Earth-based Spirituality",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Tong, Rosemarie(1989),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Westview Press), 『여성해방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 譯, 한신문화사,
1995.
- Warren, Karen (1991), "Feminism and The Environment: An Overview of the
Issu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Newsletters on Feminism and
Philosophy 90(3) (Fall) 108-16, "여성해방론과 환경: 그 관계를 생각하며",
박연규역, 대구 푸른 평화운동본부, <생태와 여성>.
- _____ "Ecological Feminism", Special Issue of Hypatia, 6-1.
- Zimmerman, Michael E(1994) "Deep Ecology and Ecofeminism: Emerging
Dialogue", in Diamond, Irene & Gloria F Orenstein(1990), *Reweaving*

The World: The Emergence of Ecofeminism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3. 국내 문헌

강수영, 김선미, 안지영(1995), "한국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여성과 환경』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민우회.

구도완(1993),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 지형", 『현대와 탈현대』, 사회문화연구소.

권귀원(1996), "환경사랑 실천, 말처럼 쉬운가요?: 환경운동가의 생활일기", <여성과 사회>, 제7호.

김근배(1991), "한국사회에서의 환경운동의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겨울호.

김성분(1995), "페놀 사건의 최후 주자", 여성과 환경,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NGO 네트워크,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여성과 환경 총서(2).

김양희(1993), "여성과 환경", 시민환경연구소 위임, 『환경의 이해』, 환경운동연합 출판부.

김영애(1995), "우장산 살리기", 여성과 환경 총서(2).

김영희(1995), "여성해방론의 여러 흐름",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회, 동년 1995.

김영희, 이명호, 김영미(1992),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비역사적 여성성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폐기", <여성과 사회> 3호.

김혜정 외(1995), "여성환경운동 지역사례 발표에 대한 토론", 여성과 환경 총서(2).

김호기(1992), "포스트맑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여름호.

_____(1992),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경제와 사회> 가을호.

- _____(1995),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김환석(1992), "환경위기: 자본주의의 위기인가, 포드주의의 위기인가", <경제와 사회> 겨울호.
- _____(1993),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환경문제", <공간과 사회> 12월호.
- 맹진영(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운동정치학", 『현대와 탈현대』.
- 문순홍(1992), "생명운동의이념, 전략, 그리고 그 한계", <현상과 인식> 가을·겨울호.
- _____(1993),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 _____(1994), "에코페미니즘의 현황과 여성정치세력화에 주는 함의", <대화> 3호.
- _____(1995), "여성-환경 접합의 이론적 측면", 『여성과 환경: 심포지엄 자료집』.
- 박상철(1991), "환경운동과 변혁운동", <사상문예운동> 가을호.
- 백옥인(1991), "한국사회 시민운동(론) 비판", <경제와 사회> 겨울호.
- 서규환(1992), "포스트-주의의 도전과 맑스주의의 위기", <경제와 사회> 여름호.
- 송태수(1991), "서유럽 신사회운동의 전망", <사상문예운동> 가을호.
- 시민환경연구소(1994), 『환경의 이해』, 환경운동연합 출판부.
- 신광영(199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겨울호.
- 양현아(1990),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개와 논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사연구회 편집부(1988), "한국 여성해방이론의 전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여성> 2호.
- 이득연(1992), "전문환경운동의 전개현황과 과제", <현상과 인식> 가을·겨울호.
- 이병천, 박형준 편저(1993),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의암.
- 이성미(1995), "우리나라 여성환경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여성과 환경 총서(2).
- 이시재(1992), "환경문제, 환경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공간환경의 재인식』, 한울.
- 이시재/ 윤진(1995), "군포시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 연구", 한국사회학회.
- 이혜라(1995), "생활협동조합과 환경운동", 위 자료집.
- 장미경 편저(1996),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 문원.

정수복外(1994),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문원.

정수복(1994),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민영사.

_____(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정화열(1991), "탈근대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와 심층생태학:경제인에서 생태인으로", 『전환기의 마르크스주의』.

최병두(1991), "인간-환경관계와 사회체계", <현대예술비평> 겨울호.

_____(1992), "자본주의의 위기이며 동시에 포드주의의 위기인 환경위기", <경제와 사회> 겨울호.

_____(1992), "자본주의와 환경문제", 『한국 공간환경의 재인식』, 한울.

_____(1993), "환경운동의 철학적 기초와 전망: 마르크스주의와 신사회운동론의 재검토", <이론>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 NGO위원회 환경분과(1995), "한국여성 NGO 위원회 환경분과 보고서",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과 공해연구회(1991), 『공해문제와 공해대책』, 한길사.

환경연구회(1994), 『환경논의의 쟁점들』, 나라사랑.

황태연(1993), "정치경제학적 환경이론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12월호.

_____(1993), "지구파괴 가속화하는 환경제국주의", 월간 <환경운동> 11월호.

ABSTRACT

People often do not realize the seriousness of ecological crisis, until it jeopardize their health or life. Whe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onsiderably damaged certain region, it has been women who recognized the pollution sensitively and initiate a direct action to solve the problem. It is also women whom the public (and women themselves) expect to take high responsibility of pollution reduction in their daily practice. Indeed, women are important, or core agency, of the grass-root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West, Chipko movement in India, community environmental movements in Korea, and in many other cases.

Ecofeminism theoretically explains such phenomenon. Why do the women sensi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that make this possible? Can women's quality show some of the principles in construction of ecologically sound society, and can it be an efficient strategy for women's liberation that women have the initiatives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Ecofeminism explains women's close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its meaning.

The aim of my thesis is to show theoretical concerns and major trends of ecofeminism, and to clear out the impl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constitution of woman's political identity. The critical conclusion of this thesis is that women find the resource to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both their social labor and biological experiences, and these experiences can make a moment to identify themselves as social and political subjects/actors of women's problems. In this respect, the concern of ecofeminism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the politics of women's liberation.

Ecofeminist's works to find the ecological principle from woman's activity, which has been mostly ignored, is very inspiring in the context of more extended ecological criticism which insist to rethink the value of 'production'

ABSTRACT

The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argues that women have been traditionally excluded from the movement, but that they are now becoming more active. The article also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argues that women have been traditionally excluded from the movement, but that they are now becoming more active. The article also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argues that women have been traditionally excluded from the movement, but that they are now becoming more active. The article also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argues that women have been traditionally excluded from the movement, but that they are now becoming more active. The article also discusses the role of women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labor'. However, the emphasis on woman's positive effort to reserve environment should be more than just confirmation of woman's responsibility or competency. The responsibility for healthy life of family and community must be shared with men as an equal subjec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Moreover, if the ecological crisis today is a result of anti-ecological industrial production, man's share becomes even bigger.

The sympathy and the share of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eterioration between man and woman can be possible by rearranging the exclusively determined rules and values of genders. And such effort will be an important premise to the ecofeminist's argument that woman's power shown in environmental movement is really a motivity for overcoming the ecological crisis.

Key Words: environmental pollution, woman, grassroots democracy, ecology, feminism, ecofeminism.